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집주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411호  
Tel.(051)245-7551~3 Fax.(051)245-7550

제작·인쇄 사인텔 Tel.(051)245-2337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21호 - 2018년 12월 24일 발행

# “용마의 힘찬 비상…새로운 미래 열었다”



〈용마의 밤 행사 관련 기사 3, 4, 5, 23면〉

2018 용마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2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730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 “동창회관 구입에 6만 용마의 역량 결집시키자”

모교지원금, 기금 보유액대로 부산 29%, 서울 71% 제시  
40대 이후 기수 동문애 표출 시작, 선배들이 보듬어줘야

### 박종찬 총동창회장 2019년 신년사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

“연말까지 동창회관 구입을 목표로 여유있는 선배들에게 큰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 동문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모금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박종찬(25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은 숙원사업이라 할 동창회관 구입을 연말까지

완결 짓기 위해 올해 한 해 6만여 동문의 역량과 성원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고 2019년 신년사에서 밝혔다.

박회장은 미리 밝힌 신년사에서 동창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올해 펼칠 사업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동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동문회를 떠나갔던 선배 기수들이 동문회에 복귀해 많은 후배들을 포용해줘 성공적인 동문회를 이끌어주도록 요청했다. 과거와 달라진 현상으로 40대 이후 기수의 동문애를 과부보 느낄 정도로 실감하게 됐다며 이때 선배들

이 찬란한 전통과 역사를 전수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 4,000명 달성에 못 미쳤으며 2019년도에 다시 도전한다면 동문들의 협조를 기대했다.

박회장은 동창회관 구입과 관련, 수익공간과 역사관 등 회관 활용 계획도 조금 비키면서 동창회관은 서울보다 부산에 먼저 만들어지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 총동창회와 서울 재경동창회 간에 얽힌 갈등들을 표면화시켜 대화로써 풀고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핵심적 사안인 모교지원금에 대해 각자 보유 기금총액을 기준으로 부산 29%, 서울 71%의 비율로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동창회 발전의 핵심 포인트가 리더의 능력과 리더십임을 꿰뚫은 박회장은 분과위원장 모임이 차기 총동창회장을 배출하는 산실(産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동창회가 영원하기 위해 선 역량을 갖춘 뛰어난 헌신적인 인재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풍토와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게 박회장의 지론이다.

박회장은 올해 북부산지구, 연제지구지구, 강서지구동창회를 신설해 부산지역에 총 8개 지구동창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19년 내 56회 기수까지 동기회 출범, 유명무실한 산하단체 정리, 용마골프대회 봄 행사로 변경 등 계획을 밝혔다.

(신년사 전문 6면 게재)

###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3,000만원이상 고액기부자 동판 리스트

(17회) 최만식 오천만원

(18회) 김길제 사천만원

(21회) 손석보 3064만원

(22회) 유재진 육천만원

(23회) 김영기 일억이천만원

(25회) 김진철 육천만원

(25회) 박종찬 일억원

(25회) 서병수 삼천만원

(29회) 김대욱 육천만원

(29회) 박성철 삼천만원

(30회) 윤성덕 육천만원

(31회) 박중호 삼천만원

(33회) 김법영 사천만원

(33회) 박명진 칠천만원

(38회) 권두성 삼천만원

◆ 모금 계좌 ◆ 부산은행 : 101-2053-6720-01 •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2018. 12. 17 현재 기준)

2019년도에는 구독료 납부 4,000명 목표 달성합니다. 부산은행 101-2053-6722-04 예금주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박종찬 총동창회장 특별기고

지난 8월 27일 총동창회에서 서울의 강실근(23회) 경발위 운영본부장과 투명한 모교 지원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강 본부장과 저, 남진현(19회) 자문위원, 옥동훈(25회) 사무총장, 신승렬(36회) 사무국장이 함께 이해한 바로는 서울 재경동창회에서는 경남고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고, 총동창회는 야구부를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재경에서는 경남중을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총동창회는 경남중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자가 낮아진 작금의 상황에서 모교 지원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지원하면 중

복지원을 피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산, 서울 보유 기금총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부산은 29억원, 서울은 71억원을 가지고 있어 총 100억원의 모교발전기금(장학기금 포함 금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 본부장께 모교지원을 29대 71 비율로 하자고 제안을 했으며, 강 본부장은 9월 27일자 문자메시지로 재경이 사회에서 저의 제안이 통과되었다고 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의논하자고 했습

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경남고와 경남중으로부터 소요예산을 받아 검토하고 공동으로 승인 후 기금을 비율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도 학생과 교사지원(기숙사 지원비 포함) 1억 3천만원, 야구부 지원 1억원으로 총 2억3

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경의 기금이자 지출내역에 따르면, 2013년에 경남고 지원 1억7,860만원, 재경대학생 장학금지급 4,180만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경남고 지원 4,970만원, 재경대학생 장학금지급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경남고 지원 액수를 매년 줄여 올해 현재 기숙사 조식비도 주지 않고 있어 모교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의미가 있겠지만 모교 재학생 지원 금액도 상황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재경이 보유한 모교발전기금의 본래 용도는 주로 모교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재경 동창회만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교 공동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천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합의된 비율대로 부산에서 6,670만원, 서울에서 1억6,33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제안된 전체 금액이 너무 크다면 다소 줄이는 것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경의 기금이자 운용에 대해 걱



용마장학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27일 열렸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모교 야구부 후원금을 경남고(사진 왼쪽) 및 경남중 교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내년 용마장학금 대폭 증액키로

총 6천500만원 지급... "기금, 회관 구입 사용"

용마장학회 이사회 의결

2019년도 용마장학회 장학금 지급액이 올해 지급분에서 2천800만원이 증가한 6천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마장학회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서면 월강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8년 장학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가졌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남고 야구부 지원 3천50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500만원, 경남중 우수학생 해외탐방 1천만원, 야구부 지원 1천500만원 등 모두 6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경남고 야구부 지원 2천만원, 우수학생 지원 200만원, 경남중 우수학생 해외탐방 1천만원, 야구부 지원 500만원 등 총 3천700만원의 예산이 지난 10월 4일 지급되었다. 이같이 올해보다 내년도 장학 지원금이 76%나 늘어나게 된 것은 은행에 예치된 장학기금의 이자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회 기금의 정기

예금 현황 보고와 함께 총동창회 구입기금 동판 제작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동창회관 구입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이사회는 기본재산 및 현금재산을 동창회관 구입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 모금액 전부를 (재)용마장학회 현금 재산으로 산입하여 동창회관을 구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박종찬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이 구상하는 동창회관 구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안강태(11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은 "내년 장학 지원금이 올해보다 많아져 다행스럽다"면서 "동창회관 구입 사업이 조금씩 구체화 되어 가는 것 같다. 반드시 성공하여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보다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장학회 임원진은 안강태(11회) 이사장을 비롯, 장혁표(8회) 남진현(19회) 이용흡(이상 19회) 박성철(29회) 서민석(30회) 손영태(31회) 동문 등 7명이다. 총동창회에서 박종찬 회장,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다.

총동창회, 모교 야구부 후원금 전달

경남고 2천만원, 경남중 500만원 훈련비 배정 심재영(38회) 동문, 야구부 신입생 환영회 개최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지난 12월 5, 7일 경남고, 경남중에 대해 야구부 후원금을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직접 각각 전달했다. 경남고에 동계훈련지원비 2,000만원, 경남중에도 동계훈련지원비 50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총동창회가 2018년 모교에 지급한 야구부후원금은 본선진출지원금 경남고 총 600만원(3회), 경남중 총 200만원(2회) 등을 포함하여 총액 3,300만원이다.

경남고 야구부 후원금 전달식은 5일 심재영(38회) 동문이 주최한 야구부 신입생 환영회(장소 자갈치 아리아 뷔페에서, 경남중은 7일 교장실에서 각각 열렸다.

한편 지난 5일의 경남고 야구부 신입생 환영회에는 신입생 15명과 재학생 29명 등 선수 44명을 비롯, 총동창회와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측 인사, 코칭스텝, 학부모 등 7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입치단결해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정대호 교장은 "총동창회의 모교 지원에 감사하다. 공부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는 명문고를 만들자"고 말했다. 남진현(19회) 자문위원은 선수들에게 자기관리를, 코칭스텝에게 파이팅을 주문했다. 행사 주최자인 심 동문은 '난향천리(蘭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를 인용해 후배 선수들의 인격 도야를 요청했다. 전광열(44회) 감독은 "올 겨울 열심히 해서 2019년에 '발전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래 학부모회 회장은 "동창회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하다. 동창회관 구입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신입생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재영(38회) 동문이 주최한 경남고 야구부 신입생 환영회.

알림

회보 본문 활자체 대폭 확대합니다

동창회보 제421호부터 본문 활자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회보 편집위원회는 11월 모임에서 지금까지의 회보 본문 활자체가 다소 작은 감이 있어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키로 했습니다. 기존의 활자 크기에서 약 23%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뜨거운 협찬’의 단결력으로 동문회 재탄생!

화합과 우정으로 뭉친 ‘용마의 밤’ 가슴마다 ‘우리는 하나’ 감동 강물 후배기수 참가 최대... “미래 밝다” 예측가능 진행 적중, 효율성 높여

“내 인생 최고의 용마의 밤이었다.” ‘2018 용마의 밤’ 참가자 중 한 동문이 한 말이다. 지난 12월 12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용마의 밤’은 이날 참가자 730명은 물론이고 6만여 동문가족에게 희망과 미래를 향한 꿈을 선물한, 황홀하리만치 멋진 대축제였다.

쌀쌀한 겨울바람을 뚫고 행사 시작 2시간여 전부터 동문들이 밀려왔다. 총동창회가 동문들로부터 받은 ‘뜨거운 협찬’으로 품위와 맛과 멋을 낼 수 있는 장소로 초대된 결과였다. 축제의 열기는 용마가족을 화합과 우정으로 뭉치게 했다. ‘우리는 하나’라는 울림이 용마들의 가슴마다 샘솟는 듯 감동의 밤이었다. 이날 후배 기수의 참가율이 역대 최대였다는 분석이다. 동창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나오고 있다.

특히 총동창회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측가능한 진행을 목표로 세웠다.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날 참가자에 대한 선명예약제를 실시, 주문 도시락과 선물이 모두 참가자 수 730명을 기적처럼 맞췄으로써 수준 높은 효율성을 보여 향후 대형 행사 진행의 본보기로 떠올랐다.

이날 행사 1부는 최치환 박원규 이상 25회 신종형(32회) 동문과 객원 2명으로 구성된 칸타빌레 색소폰 앙상블의 오프닝 세레머니, 고기 및 동창회기 입장, 이병찬 고문의 개회 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총동창회장 인사말, 축사, 건배 제의, 용마코러스 연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27회 동문으로 구성된 ‘더 워커스’ 락밴드의 연주 속에 만찬이 열렸고, 기수별 소개, 가수 백수정 공연, 행운상 추첨, 고가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동문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저의



‘용마의 밤’ 축하 케이크 커팅 후 송규정(16회) 동문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노력에 많은 동문들이 5천190만원이란 놀랍고 감동스러운 협찬으로 성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중 모두 1억원 이상의 협찬금이 들어왔다면서 대단한 단결력을 가진 동문회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여유 있는 선배들이 동창회에 불꽃과도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회장은 “후배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반드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후배들에게는 회보 구독료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문제인(25회) 대통령은 ‘용마의 밤’ 행사를 축하한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동문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요지의 축전을 보내왔다.

안강태(11회) 총동창회 명예회장과 이명규(24회) 재경동창회장이 1부 행사에서 축사를 했으며, 뒤늦게 도착한 오거돈(21회) 부산시장은 2부 행사 중간에 인사말을 했다. 송규정(16회) 자문위원, 이용흥(19회) 고문과 서병수(25회) 전 부산시장, 김경희(9회) 재경 고문이 차례로 건배사를 했다.

이날 만찬은 호텔식 도시락으로 맛과 시간적 여유 면에서 참가자 모두 만족해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동창회보 구독 확장 36, 49, 39회 수상 공로패 김종광·이문열 동문... 감사패 박극제 동문

‘용마의 밤’ 행사 동창회보 구독 시상에서 25회가 양보하여 36회가 1위, 49회 2위, 39회가 3위를 차지했다. 박종찬 회장이 사비로 각각 50만, 30만,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공로패는 김종광(23회) 용마당구회장과 이문열(29회) 덕형리그회장이, 감사패는 박극제(24회) 동문이 받았다.

〈용마의 밤 참가자 명단 23면 게재〉

① 2부 행사의 시작을 여는 27회 락밴드 그룹 ‘더 워커스’의 공연 모습. ② 용마의 밤 행사 시작을 알리는 25회 박원규 최치환 32회 신종형 동문의 색소폰 연주. ③ 1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용마코러스의 환상의 하모니. ④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패와 감사패 수상자. 좌로부터 23회 김종광 용마당구회장, 24회 박극제 명예동문(전 서구청장), 29회 이문열 덕형리그회장. 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를 이벤트 수상 가수. 좌로부터 39회 박근태 동기회장(3위), 36회 양호진 동기회장(1위), 49회 최유탄 동기 사무국장.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 도시락·선물 730개 주문, 참석자 730명 “이런 ‘족집게’가...”



## 예약실명제 주효, 예산 낭비 막고 효율성 극대화

### ‘용마의 밤’ 이모저모

○··이날 참가 예약자는 애초에 719명 이었고, 도시락과 선물은 730명분으로 준비했었다. 여분은 11명분. 노쇼(no-show)와 예약 없이 현장 등록자 수를 가능한 예상치였다. 실제 노쇼가 48명, 현장 등록자가 59명이었다. 예상치를 딱 맞힌 결과가 나왔다. 총동창회 집행부는 이날로부터 ‘족집게 도시’ 변얼에 올랐다.

### 잘되는 곳은 경남중고 동창회

○··안강태(11회)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최고조의 용마 위상을 지키기 위해 동문간의 단결과 대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규(24회) 재경동창회장은 “동문은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정들면 단결되고 큰 힘이 솟는다”면서 “부산과 서울 동문들이 자주 만나 대단함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2부 행사 중에 입장한 오거돈(21회) 부산 시장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잘되는 곳 한 곳 있는데 바로 경남중고 동창회”라며 박종찬 회장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부산갈매기’ 한 곡도 선사.

### 설레는 마음에 2시간 전 도착

○··용마의 밤 행사장에 맨 처음으로 도착한 참가자는 정은섭(13회) 동문. 정 동문은 공식행사보다 2시간30분이나 앞선 4시에 도착.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사는 정 동문은 “몇 년 만에 롯데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리는 용마의 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일찍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 중 최고참 기수는 6회로 박웅진, 배종권 동문이었다. 제일 막내 기수는 65회 황태호 동문이었다.

### 가수 백수정, 분위기 확 띄워

○··정윤희(36회) 동문이 주선한 가수 백수정의 노래로 용마들의 기(氣)를 살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 2011년 ‘바로내 남자’란 곡을 내놓은 백 가수는 이날 좌중을 휘젓고 다니며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그녀는 ‘프로였다’.

### 이대호 열광팬 배트 경품 당첨

○··정우광(16회) 동문은 이대호(55회) 선수의 올해 타율, 타점, 홈런개수를 모두 맞춰 이대호 선수 사인 배트를 경품으로 받아갔다. 타율 0.333, 125타점, 홈런 37개. 정 동문은 이대호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이효성 동문 200만원 상당 경품

○··200만원 상당 라식 수술 쿠폰 경품은 현대자동차 동문회장 이효성(35회) 동문이 거머쥐었다. 박종찬 회장이 추천, 4번째 만에 당첨자로 뽑혔다. 이 동문은 “난생 이런 행운은 처음”이라고.

### 진행요원 헌신, 깔끔한 행사

○··‘2018 용마의 밤’을 깔끔한 행사로 명명할 수 있게 빈틈없는 진행을 수행한 진행요원들에 대해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식사대접을 제시한 동문도 나올 정도. 박정민 신동훈(38회) 하순호(39회) 김신욱(41회) 김현오(42회) 김대영 김영희 김성수 오일남(43회) 성상용(47회) 박보순 이견영(51회) 김지운 정상중 김태현(52회) 송승운 최동환(53회) 신동수 이준일(54회) 동문 등 모두 자랑스러운 용마들이다.



① 2부 락밴드 공연시작과 함께 도시락 식사를 함께하는 동문들. ②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경남고 정대호, 경남중 박승병 교장이 각각 기를 전달받아 흔드는 모습. ③ 최다참석 36회 동문단체. ④ 44회 동문단체. ⑤ 39회 동문단체. ⑥ 경품 이대호 배트를 받고 좋아하는 45회 손창오 동문.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 ‘협찬 바이러스’, 용마의 미래에 희망을 쏘다

## 의리와 사랑 점철된 릴레이 쾌척, 감격 또 감격

“5천190만원!”

지난 12월 12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 크리 스타볼룸에서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 ‘2018 용마의 밤’ 행사에서 발표된 행사협찬금 총액이었다. 행사 참가자 730명이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환호했다. 그것은 돈의 액수가 모두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 그것과는 격이 다른 고차원의 감동이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역사상 단일 행사에 이렇게 많은 협찬금이 일시에, 개인별, 동기회별, 직능과 지역별 등 고르게 각출된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또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기록적인 협찬금액수에 놀라움을 넘어 북받쳐 오른 감격은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과 단결력,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용마의 의리와 사랑이 점철된 것이었다. 올해 기별야구 50주년 행사에 3,560만원이, 제20회 용마골프대회에 1천700만원의 협찬금이 모아졌다. 올해 큰 행사에 들어온 협찬금이 1억원을 넘는다. 협찬바이러스가 총동창회와 용마개개인의 가슴에 찬란한 희망의 빛을 쏘아올린 것이다.

이날의 감격은 행사 참가자 730명 동문에 국한된 것이 물론 아니다. 6만여 동문 전체의 것이다. 용마 모두의 가슴을 훈훈하게 또 촉촉하게 적시줄 만큼 넉넉한 감동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6일 오후 ‘2018 용마의 밤’ 행사 준비위원들이 행사 일정 숙지와 사전에 행연습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용마의 밤’ 행사에 들어온 이날짜의 협찬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회장은 “동창회를 위한 여러분 헌신과 노력 봉사에 기부문화까지 조성되고 있다. 총동창회의 밝은 앞날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협찬바이러스가 뿌려지기 시작한 날은 10월 29일. 박회장은 이날 총동창회 밴드에 ‘2개 가을 주요행사를 결산하고 연말 대형행사 용마의 밤을 앞두고서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말미에 ‘동문 개개인의 협조 속에서 총동창회는 성장합니다. 타인을 고려하는 마음의 부자가 많은 동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용마의 정신과 의리 그리고 한마음

을 강조한 댓글이 올랐다. ‘총동창회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 ‘응원한다’ ‘조금이나마 30만원 협찬’ ‘언제든 불러주면 달려가겠다’는 글이 이어졌다. 그로부터 용마의 밤 행사 날까지 한 달 보름간 밴드는 뜨거웠다. 협찬바이러스가 만든 감동의 물결이 과도치듯 밴드를 울렸다.

협찬금과 물품 내역은 계속 업데이트 되었다. ‘약소합니다. 동참하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글이 오르자 항상 동문들을 위해 협찬하는 (너의)모습 보기 좋구나. 사업 번창해라라는 선배의 격려도 올랐다.

45회의 후원에 43회 선배 기수가 “후배들 멋지다” 격려하면서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커다란 사랑의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는 큰 걸음”이라 말했다.

11월 2일 김해지역 동문회서도 후원금을 보내오면서 박회장의 슬선수범과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11월 3일 총동창회 막내 기수 52회가 50만원의 협찬금을 내면서 멋진 말을 덧붙였다.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총동창회의 근간이 될 후배기수들의 동기회 결성에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선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43회는 100만원의 협찬금을 냈다. “기별야구 준우승했지만 게임 내내 즐거웠다. 참가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념하고자 조금씩 성금을 건넸다”고 밝혔다.

쏟아진 협찬 릴레이! 그 변(變)도 다양하고 아름답다. “전 동기들의 뜻을 모아 미약하나마” “저희 회사 제품 2개 협찬” “미력하나마...힘을 보태고자 협찬” “부족하나마” “미력하나마” “와이프가 직접 제작 판매하는 소이캔들(천연재료) 5개 협찬” “약소하나마” “추가 50만원 협찬”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한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요즘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니까 총동창회장으로서 더욱 분발해서 멋진 동문회로 완성시키고 싶은 욕망이 솟구친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 응답했다. “총동창회장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책임감도 새삼 깨닫는다. 열심히 해보자”고 밝히고 있다.



‘용마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 〈2018 용마의 밤〉 협찬 금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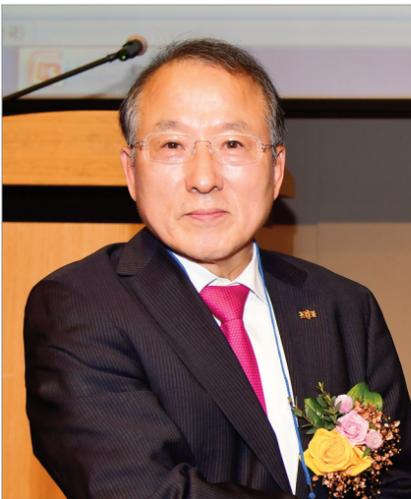
2018년 12월 12일 기준

No	성명	기수	금 액	No	성명	기수	금 액
1	손 부 흥	15	50만원	40	양 호 진	36	50만원
2	송 규 정	16	200만원	41	강 성 옥	37	30만원
3	김 길 제	18	100만원	42	주 영 록	38	100만원
4	조 성 재	18	50만원	43	박 근 태	39	50만원
5	남 진 현	19	50만원	44	박 인 석	39	50만원
6	이 용 흥	19	100만원	45	25 쌍백회		50만원
7	허 범 도	22	50만원	46	26회 동기회		50만원
8	이 병 찬	23	50만원	47	31회 동기회		50만원
9	노 상 우	24	50만원	48	32회 동기회		50만원
10	원 동 희	24	100만원	49	34회 동기회		50만원
11	김 길 수	25	50만원	50	35회 동기회		50만원
12	김 익 수	25	50만원	51	38회 동기회		50만원
13	김 중 현	25	50만원	52	40회 동기회		50만원
14	박 세 철	25	50만원	53	41회 동기회		50만원
15	박 종 찬	25	500만원	54	42회 동기회		100만원
16	서 병 수	25	100만원	55	43회 동기회		100만원
17	손 기 천	25	100만원	56	44회 동기회		100만원
18	송 정 규	25	100만원	57	45회 동기회		50만원
19	이 대 우	25	100만원	58	47회 동기회		50만원
20	이 명 철	25	100만원	59	49회 동기회		30만원
21	제 영 성	25	50만원	60	50회 동기회		50만원
22	한 준 석	25	50만원	61	51회 동기회		50만원
23	허 태	25	50만원	62	52회 동기회		50만원
24	김 태 우	27	50만원	63	재경지역		100만원
25	윤 정 환	27	50만원	64	남부산지구		50만원
26	엄 재 훈	28	100만원	65	동래금정지구		50만원
27	이 원 철	28	50만원	66	사하지구		30만원
28	최 강 호	28	100만원	67	중부산지구		30만원
29	김 대 옥	29	100만원	68	김해지역		30만원
30	박 성 철	29	100만원	69	양산지역		50만원
31	이 문 열	29	100만원	70	울산지역		30만원
32	김 현 태	30	50만원	71	창원지역		30만원
33	윤 성 덕	30	50만원	72	덕형리그		50만원
34	윤 인 태	30	50만원	73	용건회		50만원
35	최 우 철	30	100만원	74	용마당구회		30만원
36	남 기 태	31	50만원	75	용마연인클럽		30만원
37	박 종 호	31	100만원	76	용마회		30만원
38	이 병 태	31	50만원	77	울산현대자동차		30만원
39	박 명 진	33	200만원	78	통영지역		20만원

No	성명	기수	내역	No	성명	기수	내역	No	성명	기수	내역
1	유 영 호	27	대선소주10박스(200병)	10	김 신 옥	41	생화 소주잔 5세트	19	박 보 순	51	소이캔들 5개
2	김 대 식	31	용마횃집 4인가족 무료식사권(15만원) 2매	11	이 양 길	41	무선 진공청소기 2대	20	최 동 환	53	대명리조트 워터파크 이용권 6매
3	류 명 석	31	와이셔츠 100매	12	최 영 준	41	30만원상당 건강검진상품권 2매	21	정 윤 희	36	닥스넥타이 5개
4	조 성 근	31	고급멜치 10세트	13	김 성 수	43	30만원상당 고급만년필2개	22	이 동 준	54	매취순 10년산 3리터 2병
5	박 진 용	36	200만원상당 무료 라식수술 쿠폰	14	김 영 휘	43	30만원 및 남녀 목욕가운 1매씩				
6	윤 경 준	36	10만원상당 성형시술권5매	15	김 종 술	43	60만원상당 누진렌즈 1세트				
7	권 두 성	38	서귀포 월드컵호텔 숙박권2매	16	성 상 용	47	스마트폰 가죽케이스 교환권5장				
8	김 태 호	38	닥스넥타이 20개	17	배 승 한	49	여행용 캐리어				
9	이 희 수	38	해운대 경복궁 5만원 식사권 10매	18	서 석 진	50	스탠드 4개				

박종찬 총동창회장 신년사 전문

# 선배님들 동문회 회귀, 후배들 많이 포용해 달라



박종찬(25회) 총동창회 회장

##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 4천명 달성 목표 재도전

전기금(장학금 포함)은 부산이 29억원, 서울이 7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회보 발행은 두 곳에서 하는데 부산에서는 동창회보(24면 기준)를 약 7,000부 인쇄해서 구독료 약 3,000여명 수금하고, 서울에서는 용마회보(20면)을 약 6,000부 인쇄하고 구독료 약 1,900명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볼 때 1/3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과 관심이 있으며, 1/3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는 못났다고 생각해서 타교출신인 것처럼 전혀 무관심하고, 1/3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추정합니다. 선배님들의 동문회 회귀가 동문회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배를 포용하는 선배님들이 많은 동문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넷째, 동기생간에는 단결력이 있었지만 동문회 전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침잠해 있었던 40회 이후 기수들이 선배들의 관심 속에서 동문애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며, 동문회 활동을 통해 선배들의 찬란한 전통의 가치를 이어 받으려는 정신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입니다.

다섯째, 부산 총동창회 작년 실적으로 총동창회 밴드 개설(현재 2,000명 이상 가입)을 비롯, 동창회보의 정기적 발간(연 6회), 동창회관 구입을 위한 3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 동문 발굴(현재 15명),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한 금도금 모교배지 배포(600개), 10년 단위 멘토 기수 시스템 시도, 부산 총동창회와 서울 재경동창회간 모교지원 비용 합의(부산 29%, 재경 71%), 동래·금정지구동창회 발족, 양산지역동창회 복구, 총동창회 조직 개편(운영위원회 신설, 분과위원장 확대), 자발적인 협찬기수의 증가로 재정의 자율화 확대(작년 3개 주요 행사에 1억 원 이상의 현금 협찬 달성), 용건회보 재발간 등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연말까지 동창회관 구입 추진

다음으로 2019년도에 추진하고 싶은 일을 중요도 순에 따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말까지 동창회관을 구입, 3천만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동문들의 얼굴을 새긴 동판을 건물 복도에 부착하고 싶습니다. 동창회관이 아직까지 없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개성고, 동아고, 동대고 동문들에게 용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산고는 알려진 바 105억원 이상의 돈을 부산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시 회관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1억원을 보유한 재경동창회도 3천만원 이상 실명 고액기부자는 11명인데 비해 부산

총동창회에 고액기부한 동문이 벌써 15명째 나왔습니다. 회관구입에 대한 동문들의 열정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고액기부자가 나와 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회관구입 소액기부운동까지 펼쳐 모든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련 계좌는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입니다. 동창회관이 구입 되면 수익 공간 외에 역사관기본역사관, 대통령역사관, 정관계 재계 학계역사관, 야구역사관 등을 꾸밀 계획입니다. 구입 건물에서 수익 사업공간이 부족하면 역사관은 모교 덕행관 1층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교와 의논하겠습니다. 재경동창회에서도 현재 71억원을 100억원까지 더 모아 재경동창회관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동문회의 역사 흐름에는 거스르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1991년 5월 30일자 동창회보의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89.2%의 동문이 동창회관은 모교가 있는 부산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동창회관은 부산에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순리입니다.

### 부산·서울 간 갈등 풀고 대타협 노력

둘째, 2018년도에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 4,000명 달성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목표는 동창회관 구입과 더불어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셋째, 오랜 기간 부산 총동창회와 서울 재경동창회 간에 실타래처럼 엉킨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하나씩 수면 위에 올려놓고 상호 사실 확인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대선배님들이 건재하실 때 매듭지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느낍니다. 갈등의 골이 깊은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사이의 현안을 풀지 못하면 우리 동문회는 불행하게도 2개의 동문회가 있는 학교가 됩니다. 왜 우리 동문회는 부산과 서울로 갈라져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하나? 수중에 있는 돈 때문이겠지요. 저도 작년 3월 총동창회장 취임 후 약 10개월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부산 고처럼 기금 창구가 한 개로 되지는 않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현재 기금총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부산 29% : 서울 71%) 모교를 합동지원하면 된다고 봅니다.

넷째, 총동창회 조직 중 분과위원장모임을 차기 총동창회장을 배출하는 인큐베이터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동문들은 시간 봉사외 돈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희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총동창회장 기수에 가까워지면 기존 총동창회장, 사무국 요원들과 수시교류를 통해 동문회의 움직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검증된 회장이 필요하며 하루아침에 준비 없이 총동창회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 후임회장은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창회관이 구입 되면 수익사업으로 기금이자자 충분히 확보되어 모교지원이 수월할 것이고,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도 4,000명 달성하면 충분한 재원으로 동문회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면서 선후배 화합에 일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화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모든 행사의 협찬도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부산에 3개 지구동창회 신설

다섯째, 부산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동문회가 되도록 북부산지구, 연제진구지구, 강서지구 동창회를 신설, 총 8개 지구동창회(기존 5개 포함 사하, 중부산, 남부산, 해운대, 동래금정)의 모습으로 갖추겠습니다. 대다수 동문들의 거주지역과 직장지역이 다르므로 두 곳의 지구동창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동호단체나 직능단체 중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산하단체에서는 정리를 하고 친목단체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총동창회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후배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집행부 산하 직능단체로 40회 기수이하로 구성된 미래발전협의회를 신설하겠습니다. 각 기수대표는 3명으로 하고 회장은 40회부터 원하는 기수 차례로 내려오면서 맡기로 합니다. 후배들의 직업이 다양해지는 만큼 동문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총동창회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단체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6회까지 동기회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 동문행사가 가을에 몰려 있어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용마골프대회를 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모교 80년사 편찬을 준비하는 첫 해로 자료 준비와 기금 준비를 재경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편찬위원회 구성을 3월말까지 해서 클트를 갖추고 구체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한해 모든 동문들의 건승과 사업 번창을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영원하라! 경남중고 총동창회여!

학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문여러분.

2018년 3월 7일 제36대 총동창회장 취임 이후 침체된 동문회의 변화를 위해 좌고우면 앉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50주년 기별야구대회, 20주년 용마골프대회와 용마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떨어져가고 식어가는 선배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되돌리려 노력했고, 동기생간 동기애로만 만족했던 후배들에게 선후배간 사랑이 왜 필요한지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화의 물꼬를 튼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 황금돼지띠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황금과 돼지가 주는 플러스 이미지의 기를 받아 2년차 총동창회장으로서 좀더 세련되게 또한 심도 있는 동문회의 발전을 이끌어볼까 합니다. 욕심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총동창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 부산·서울 구분 없이 지원 당부

우선 서울에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모교를 지키고 있는 부산 총동창회에 대해 재정이 약하다고 더 이상 안스럽게 생각마시고 믿어 주시고, 새롭게 내리는 뿌리를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경동창회가 보유한 71억원 모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때 밝힌 대로 한 푼도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로지 모교 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에 마음에 드신다면 올해부터는 부산 서울지역 구분 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 동창회 현주소 이렇습니다

지나해 동문회 활동을 반추하면서 제가 파악한 동문회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첫째, 동문간 유대강화와 모교지원을 위한 동문회 활동은 부산과 서울의 두 중심축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교발

경남고 야구부 발전 토론회

# “우승보다 인격 도야와 자질 개발 감독 원했다”

## 전광열 현 감독 유임 결론… 재경동창회는 불만

경남고 야구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12일 경남고 국산관에서 열렸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모교 야구부 발전에 관심이 많은 졸업생 동문들과 정대호 경남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야구 선수 학부모, 그리고 이대호 송승준 신본기 등 모교 출신 프로야구선수 등 각계 50여명의 인사가 토론회에 참가했다. 특히 재경동창회에서 4명-김영목(23회) 허철구(25회) 서봉교 권용대(이상 29회) 동문을 대표로 파견, 이번 토론회에 대한 동문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본란에서는 각 대표군(群) 별로 주장 내용을 소개한다.)

이 자리서 도출된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동창회에서 경남고 야구부에 매년 1억원의 지원금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29대 71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재경동창회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이다. 둘째는 전광열 현 감독을 유임시킨다는 것이다. 감독 평가에 높은 평점을 받고 있고 이렇다 할 하자가 없으며 야구선수와 학부모, 동문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야구부의 전반적인 현황과 올해 야구부 운영 예산 현황 등에 대한 학교 측의 기초 자료 발표에 이어 토의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이 소요됐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토론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사회를 직접 맡았다.

최근영 경남고 예체능부장 교사의 자료 발표에 따르면, 야구부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즉 학부모 수익자 부담 경비가 올해 경우 4억2천497만원(동계훈련비 포함)이다. 전체 지출 예산 5억9천134만원의 71.9%나 된다. 선수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매월 89만원이다. 실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선수들 보약비, 부상 치료비, 개인 트레이닝비는 물론이고 전국대회 출전 시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부 재정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학교 측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일부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교장은 “경남고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 ‘선도적 투명성 학교’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측에서도 매달 야구부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 추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구부 재정에 학부모 부담률이 과중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71.9%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선 동창회 지원 확대가 관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재경동창회 측은 “경남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동창회의 관심이 멀어졌다. 성적이 좋아지면 자발적인 지원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창회의 지원 확대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지역 내 라이벌 고교인 부산고는 8천만~9천만원, 개성고는 1억원이 동창회에서 지원된다고 한다. 또 고교 진학 중학생 선수들 중 훌륭한 재목같은 장학금을 많이 줘서 데려 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부모 측에서는 전국대회 서울 원정경기 시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동창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재경동창회 측은 장학금을 늘리는데 찬성한다고 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 내년 야구부 재정 지원 방안으로 1억원 지원을 목표로 해서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하며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향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구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열띤 토론회가 되었다. 일부 용어 사용 문제로 큰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서 재경동창회측은 전광열 현 감독의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학부모, 야구사랑 동문, 프로야구 선수 등은 전 감독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학교 측은 전 감독의 유임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전 감독



경남고 야구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12일 경남고 국산관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경남고 야구부 발전 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독에 대한 평점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재경동창회 측은 “동문 입장에서 모교 야구부의 목표는 전국대회 우승이 돼야 한다. 재경동문들은 우승에 목말라 있다. 모교 야구부가 전국대회 8강까지는 잘 올라오지만, 그 후로는 무기력하게 패퇴하고 만다. 감독의 작전부재가 결정적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정한 선임을 염두에 둔 듯 감독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야구사랑 동문들은 “우승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학생운동 지도자는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과 지성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 지나친 관여는 학교에 대한 압력행사가 될 수 있다. 교권침해가 된다. 야구부와 학생을 위한다면 순수하게 서포트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학부모들은 “경남고는 올해 5명이나 프로야구단에 진출했다. 프로야구나 대학 등

진로, 진학 등을 위해 선수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도를 잘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승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전광열 감독은 잘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대호 선수는 “현 감독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감독인데 왜 새로 선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고, 송승준 선수는 “고교 시절 코치였던 전 감독을 못 만났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인성 교육이 오늘의 우리와 나를 있게 했다”며 전 감독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였다. 학교 측은 전 감독의 유임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전광열 감독에 대한 학부모, 프로선수, 동문들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이 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전광열 감독의 유임은 승리대로 가는 게 옳다”면서 이날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기별야구 청년부 우승 45회 동기회 야구부발전 기금 전달, 뜻깊은 자축



45회 동기회가 지난 11월 12일 야구부 발전 기금 150만원을 경남고 정대호 교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구자삼 동문, 정대호 교장, 권우일, 김성준 동문

기별야구대회 50주년 한마음 축제로 총 만했던 기운이 모교 야구부발전기금 기부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 청년부 우승 45회 동기회는 자축의 의미를 보다 뜻깊게 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동기들이 얼마씩 각출하여 성금을 모아 모교 야구부 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했다. 150만원이 모아졌다. 이 기부금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경남고 야구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리서 학교에 전달됐다.

45회 동기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30만원씩 경남고에 야구부발전기

금을 송금하고 있다. 졸업기념 20주년 훌커 밉데이를 치르고부터 뭔가 모교에 도움되는 일을 하자는데 동기생들이 한마음을 이뤘던 것.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를 합치면 2천500만원이 넘는다. 45회 동기회는 후배 장학금으로 1인당 매년 12만원씩 각출하고 있다고 한다.

권우일 45회 동기회 회장은 “45회는 동창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등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각 동기회에서 십시일반 모금하여 모교 야구부 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 ‘위대한 용마’ 이태석 신부, 남수단의 ‘십자성’ 되다

### 남수단 정부, 대통령 훈장 추서 남수단 교과서에 헌신적 삶 기술

‘영웅은 떠났어도 우리들 마음에 빛나는 별이 되었도다.’

아프리카 남수단 오지마을 톤즈에서 헌신적 삶을 살다 2010년 선종한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35회 동문) 신부가 현지에서 위인(偉人)으로 추앙받으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고(故) 이태석 신부는 지난 11월 20일 살과 키르 마야르디트 남수단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훈장을 추서 받았다. 또 인류애의 표상과도 같은 그의 삶은 내년 남수단 학생

이 사용할 교과서에 기술돼 나온다.

키르 남수단 대통령은 “(훈장 추서가)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이 신부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외국인 최초로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남수단 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신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훈장은 김기춘 남수단재단 이사가 대통령궁에서 대신 받았다.

남수단 교육부는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담은 교과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남수단 고교 시민생활 교과서는 2페이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3페이지

에 걸쳐 이 동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이 신부의 학창시절부터 남수단에 오게 된 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한다.

이 동문은 의사를 포기하고 신부가 되어 아프리카내 최빈국 남수단 톤즈로 갔다. 그곳에서 이 동문은 의사이자, 친구,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2001년 톤즈에 정착해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삶은 인류애의 표상이었다.

내년에 사용될 남수단 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영웅으로 남아 있다.



남수단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숭앙 받는 고 이태석 신부.

# ‘후배 사랑 넘실’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 이대호 선수, 베품의 행사 주관 신입생들 “열심히 할 터” 각오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기장드림볼파크 드림텐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 모교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 야구 애호가 동문, 학부모 등 25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롯데자이언츠 이대호(55회) 선수는 축사를 통해 “경남고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다. 신입생 후배들의 진학을 축하한다. 훌륭한 교장선생님과 감독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라고 말했다.

정대호 경남고 교장은 환영사를 시작하며 “이대호 선수와 이름이 같아 대화 중 이대호 선수를 거명할 때는 성까지 붙여서 말해 달라고 한다”며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뒤 “행사 개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신입생 16명은 탁월한 선택을 하였다. 가장 인자하고 잘 가르치는 감독을 만나게 된 여러분은 행운이다”라고 말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이대호 선수를 중심으로 이 같은 행사를 연데 대해 “성공한 선배의 가치 있는 일로서 사나이의 의리를 느낀다”며 경의를 표하고 “극소수의 후원은 외롭다. 함께하는 후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신입생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어 명예와 영광을 누리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자신의 둘째딸이 이대호 선수 결혼식을 벤치마킹하여 1주일 후 그 자리서 결혼식을 가졌으며 개인적 인연을 이야기하고, “이대호 선수가 선행으로 모교를 빛내고, 실력으로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용마의 밤 행사 경품용으로 총동창회 차원에서 300만원 어치의 야구 용품을 구매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기장드림볼파크 드림텐트에서 개최된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 모습.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행사에서 신입생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신입생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하겠다”면서 롤모델로 이대호 송승준(53회) 선수를 꼽았다.

전광열(44회) 감독은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야구부 후원에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덕형리교회장 이문열은 1천만원 상당의 야구용품 지원 약속서를 전달했다.

이날 이대호 송승준 등 프로선수들의 친필 배트, 글로브, 야구공 등 후원제품 현장 판매도 있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이대호 선수에게 야구용품 구매금을 전달하고 있다.

### 이대호, 6번째 골든글로브 3번째로 3분야 걸쳐 수상



이대호(55회 사진) 동문이 개인 통산 6번째 골든글로브를 켜다. 지난 12월 10일 서울 코엑스 오디

토리움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내에서는 최다.

이 동문은 프로야구 역사상 세 번째로 3개 분야에 걸쳐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도 세웠다. 그는 2005~06년, 2011, 2017년에는 1루수 부문에서, 2010년에는 3루수 부문 수상자가 된 바 있다. 종전 3개 부문 수상자는 장종훈(옛 한화 이글스·1루수, 유격수, 지명타자)과 양준혁(옛 삼성 라이온즈·1루수, 외야수, 지명타자) 뿐이었다.

이 동문은 올해 144경기에 나와 181안타를 치며 타율 0.333, 홈런 37개, 125타점을 기록했다. 이 동문은 “올해 타격에만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고 열심히 했다. 내년에는 팬들이 어깨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동창회보 광고

동창회보 광고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광고가 동창회의 활력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 광고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 전면광고 200만원 / 반면광고 100만원  
안쪽 전면광고 150만원 / 반면광고 75만원  
4단 하단광고는 40만원.

광고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3  
경남중고 총동창회

# ‘젊은 용마’ 52회, 덕형리그 패권

## 40A팀 15대 5로 가볍게 제압, 연속 우승



지난 12월 1일 덕형리그 올스타팀과 대마도 사회인야구 연합팀이 경남고 운동장에서 친선경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 덕형리그 올스타, 대마도팀에 설욕

9개월을 달려온 덕형리그의 패자(覇者)는 ‘젊은 용마’ 52회였다. 지난 12월 1일 낮 경남고 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52회는 40A를 15대 5로 가볍게 제압했다. 2년 연속 우승이다. 그것도 최초이다. 40A는 준우승, 3위는 38회와 41회가 공동수상. 우승팀 52회의 정길수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거머쥐었다.

개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시상=△최우수선수 52회 정길수 △우수투수 52회 하상운 △다승 40B 박기엽 4승 △방어율 52회 하상운 1.31 △탈삼진 38회 이

수관 31개 ◇타격=△1위 41회 강 훈 0.577 △2위 52회 정길수 0.564 △3위 36회 임창섭 0.545 △최다타점 29회 차동렬 17개 △최다안타 36회 차대일 20개 △홈런상 40A 김동근 2개 △감투상 40A 이승배 △공로상 31회 임종태 △최다타점 29회 차동렬 17개 △최다안타 36회 차대일 20개 △홈런상 40A 김동근 2개 △감투상 40A 이승배 △공로상 31회 임종태.

덕형리그는 20일 오후 6시30분 자갈치 미정횃집에서 남회식을 갖고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해 시상했다.

한편 12월 1일 오후 덕형리그 결승전에 이어 경남고 운동장에서 덕형리그 올스타팀과 일본 대마도 사회인 연합팀 간 친선 야구경기가 벌어졌다. 덕형리그 올스타팀이 대마도시연합팀을 15대 2로 격파, 지난해를 대마도 원정 경기의 패배를 설욕했다.

# “용마의 밤” 성공, 이들의 힘이 컸다

## 사무국장 회의, 인원 예측과 참가 설명회

“11월 16일 현재 4천160만원의 현금 협찬이 들어왔다. 경남중고 동창회 역사상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행사 전까지 약 4천5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동창회를 멋진 모임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지난 11월 16일 오후 서면 월강초밥에서 열린 각 동기회 사무국장 전체회의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한 인사말이다. 총동창회가 ‘2018 용마의 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는 말이다.

행사가 개최지가 경남중 강당에서 부산롯데호텔로 변경됐으며 예산 또한 8천400만

원으로 편성해 두었다. 800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의 대형 행사인 만큼 동문들에 대한 행사 개요와 참가 독려, 그리고 협찬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불가피했다. 바로 이날의 모임의 이유였다.

이날 모임에는 15회부터 53회까지 각 기수 사무국장 30명과 총동창회 집행부 임원 5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참가인원에 대한 예측이 ±5% 이내가 되게 해달라”면서 “각 동기회의 꽃이라 할 사무국장들의 예측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 자리서 용마의 밤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난 뒤 동창회관



각 동기회 사무국장 전체회의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서면 월강초밥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구입, 기별야구대회, 야구관계자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무국장단의 협조를 구했다. 박 회장은 “이번 용마의 밤 행사 참가자들이 경남중고 출신의 용마라

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회의 뒷풀이 생맥주집에 배준수(47회) 동문이 합류, 1차 계산을 치러 박수를 받았다.



기별야구대회 진행 요원 격려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5일 오후 자갈치 미정횃집에서 열렸다.

# 기별야구대회 진행요원 ‘격려의 밤’ 성황

### 박종찬 총동창회장 사비 쾌척

기별야구대회 50주년 한미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남긴 여운이 오래갈 듯하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자갈치 미정횃집에서 열린 기별야구대회 진행 요원 등을 위한 격려의 밤 행사가 있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사비로 진행한 자리였다. 모두 60명의

인원이 좌석을 꽉 채웠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희망을 주는 동창회를 지향한다. 즐거움을 주는 단체가 돼야 한다”면서 “지난 한미당 축제에 수고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오늘 저녁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열(29회) 50주년 행사 준비위원장은 “개인 사비로 이 자리를 마련한 박종찬 회장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자리에 참가한 모두의 헌신과 봉사가 대회 성공을 가져왔다. 동창회와 모교를 더욱 아끼고 야구를 사랑해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박상국(33회) 경야회 회장은 “승패에 연연해하지 않고 선후배간 우정과 사랑으로 치르는데 기별야구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대회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남진현(19회) 지문위원은 대회 집행부와 진행 요원들을 격려하면서 “이 같은 기상을 살려 푹푹 뭉쳐서 큰 발전을 이루자. 영원히 이 전통과 맥이 후배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서 이번 대회기간 동안 수고한 동문들과 참가 기수별로 한 사람씩 마이크를 쥐면서 대회 성공의 감회를 피력하면서 총동창회에 바라는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 “52회 졸업 당시 IMF위기... 우리는 절망 속 희망 일켰다”

52회 동기생, 홈커밍데이 개최  
불굴의 의지 경험 등 이야기 꽃  
‘자랑스런 우리’ 자긍심 최고조

“파국과 좌절에서 도전과 용기를 배운 우리. 절망과 위기에서 희망과 기회를 쏘아올린 우리. 우리는 경남중고 52회 동기생이다.”

지난 11월 3일 오후 7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6층 테라스홀. 경남중고 52회 졸업생들이 고교 졸업 2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8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지난해 11월 자갈치 부산횃집에서 동기회 창립총회를 가진 지 1년 만이었다. 그 무렵 52회 동기회는 모교 야구동호회 덕형리그에 처음 참가, 우승을 거머쥐면서 동기회 결성의 탄력을 받았던 것이다. 야구가 결속의 축진제였다.

1997년 말. 졸업을 앞두고 대학입시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였다. 대한민국(號)을 좌초시킨 IMF 외환위기의 공포가 고3 교실에도 엄습했다. 620여 동기생들의 각 가정에도 외환위기의 한파가 휘몰아쳤고, 각자의 진로 선택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제 위기의 지속과 사회적 변혁,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이 맞닥뜨리고 피할 수 없이 깊어져야 할 운명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620명 중 80명이 참가했다. 그만큼 동기생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 참가자들의 마음 한 편을 허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반자리는 참가 80여 동기들의



경남중고 52회 동기회는 지난 11월 3일 오후 7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재회의 기쁨으로 금세 채워졌다. 불굴의 용마 의지로 도전해왔고 꿈을 키워왔던 우리들, 자랑스러운 우리라는 칭찬과 자긍심의 꽃이 만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을 비롯, 총동창회 임원, 멘토 기수 선배 등 내빈과 학창시절 은사 8명이 초청인사로 참가했다.

52회 동기회 김현진 사무국장(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지운 부산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졸업 후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이 자리가 있게 해준 선배, 은사, 동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기회 결성과정의 애로를 설명하고 도와준 동기생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행사가

탈로그가 멋져 52회의 저력을 느꼈다. 동기생들이 동기애로 똘똘 뭉쳐서 자랑스러운 기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서 이날 참석 52회 동기생들 모두가 동창회보 구독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 받기도. 박 회장은 52회 김지운 부산동기회장과 허균형 재경동기회장에게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종철 은사(재학 시 7반 담임)는 “제자들이 능률하게 자라 사회 역군이 되어서 지도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사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은사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했다.

52회 동기회는 이날 참가자 80여명이 동창회보 구독료를 납부하기로 한데 이어 ‘2018 용마의 밤’ 행사 협찬금 50만원을 박

종찬 총동창회장에게 전했다. 이에 화답하듯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건배사에서 후배들의 향후 인생이 아름답고(beautiful) 경이롭고(wonderful) 성공적(successful)이기를 기원하며 “ful, ful, ful”을 외쳤다. 박 회장은 이날 금일봉 50만원을 사비로 52회에 희사했다.

뷔페식 식사와 초대 가수 공연, 52회 백선명 동문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게임과 여흥, 경품행사 등을 잘 마치고, 은사께 큰 절과 단체 기념촬영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한편 52회 졸업생 40여명은 이날 오후 모교를 찾아 만추(晩秋)의 정취에 휩싸인 교정을 둘러보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덕형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 24회 독무대...우승·하이런상에 패자조 우승

제6회 용마당구대회 성료, 18개팀 72명 열전

경남중고 총동창회장기 쟁탈 제6회 용마당구대회가 지난 12월 1일 부산 남포동 다빈치당구클럽에서 열렸다. 21회부터 54회까지 13개 기수에서 모두 18개 팀이 출전, 자웅을 겨뤘다. 72명의 출전 선수와 각 동기회별 응원단 등으로 대회장은 열전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당구불이 서로 맞부딪치는 경쾌한 소리가 합창을 하듯 이곳의 19개 당구대에서 쏟아졌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장장 8시간의 대장정이었다.

이날 행사는 24회를 위한 대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4회 A조(김학주 임덕철 노상우 황성훈)가 우승을, 하이런상에 24회 임덕철 동문이, 24회 B조(정기춘 이재능 박해성 태창업 장현동)가 패자조 우승

을 각각 거머쥐었다. 24회는 제4회 대회에서 우승, 지난해 제5회 대회선 3위와 하이런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당구 실력이 기복없이 정상급 기량임을 입증한 셈이다.

준우승은 30회 A조(박진명 이광봉 정광 박모철)가, 3위는 29회(허중 김태완 조대제 현응렬 박기찬)가 차지했다.

용마당구회 김종광(23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훌륭한 에티켓으로 선후배간 친목을 다지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멋진 승부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우승팀 24회와 함께 23회와 25회팀 선수와 응원단 등 30여명을 뒤풀이 장소(자갈치 미정횃집)에 초청, 만찬을 베풀었다. 이날 초청된 23, 24,

25회는 같은 시기에 고교에 재학한 우연찮은 인연이었다.

◇협찬금 및 협찬품=△용마당구회 회

장 김종광(23회) 선캡 120개, 기념타월 120장 등 400여만원대 협찬품 △23회 당구회 20만원 △23회 김영기(휴롬 회장) 티메이커 10개 △24회 노상우 용마당구회 차기회장 50만원 △25회 당구회 고급 큐대 4개 △26회 당구회 20만원.



제6회 용마당구대회가 지난 12월 1일 부산 남포동 다빈치당구클럽에서 7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용마의 명예 걸고 칼라파타르 완주”

### 이강훈(29회) 동문, '29BC 기(旗) 들고 인증샷 “많이 가져온 히말라야 정기(精氣), 나눠 줄게”

“29BC(29회 산악회)의 명예를 걸고 히말라야 칼라파타르(5,550m)를 완주했다. 인증샷 찍고 내려와선 거의 초죽음 상태였다. 잠시 의식불명의 상태를 경험했다. 그래도 히말라야 정기(精氣) 많이 받아왔다. 동기들에게 나눠줄게.”

이강훈(29회) 동문이 지난 12월 1일 에베레스트(8,848m) 최근점 포인트인 칼라파타르(5,550m)를 등정했다. 이 동문은 지난 11월 23일 출국해 이달 8일 귀국했다.

“에베레스트 마지막 로지인 고락셉로지(5,140m)에서 칼라파타르까지는 경사 45도인데 소백산 칼바람에다 영하 3~5도의 날씨였다. 한발 내디디면 숨이 차서 계속 헐떡헐떡 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처음부터 엄두 못내는 사람도 많았다.”

고도 5천m 지점에서는 산소회박으로

조그만 동작에도 극도로 숨이 차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 이 동문은 “등산화 끈도 단번에 매지 못하고 4~5번에 나눠서 한다. 지퍼 한번 잠그면 계속 헐떡거린다. 머리는 지끈지끈 하고 속은 메스꺼워 계속 구토할 것 같았다.”

칼라파타르 등정 5일 전 먼저 다녀온 일 본인에게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힘든 게 아니고 고통스러웠다고 한 소감을 나도 오롯이 경험(두통 감기몸살 구토증 헐떡거림 등)했다고 한다.

이 동문은 이번 등정을 위해 산행으로 꾸준히 몸만들기를 계속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230m)까지 등정했다. 이 동문은 “이번 칼라파타르 등정은 안나푸르나 때보다 1천m나 높은 고지라 정말 힘들었다”며 후유증 극복에



이강훈(29회) 동문이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등정에 성공한 뒤 동기회 산악회 29BC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맨 뒤쪽 검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9BC”는 29회 산악회 명칭이다. 동기 산악회 발족 시 회명으로 정한 것이다. 동기들이 생전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단체로 가보자는 뜻에서 정한 이름이다.

29회 동기들은 이 동문의 이번 쾌거에

이구동성 갈채를 보냈다. 한 29회 산악회 회원은 “이 동문이 이번에 선발대로 칼라파타르를 답사한 걸로 하고, 이른 시일 내 29BC 단체로 원정 갈 때 좋은 안내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또 한 동기는 “이 나이에 후회 없이 하고픈 것 다하는 당신이 진정한 사나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 용마산악회 창녕 영축산 남회 산행 참가기

# 비움과 인연을 생각한 오르막길

### 29회 4인방, 쉬운 B코스 가며 겨울 낭만 A코스 암봉과 소나무 절경, 다음 기회에



용마산악회 2018년도 남회 산행이 지난 12월 9일 창녕 영축산(靈鷲山)에서 실시됐다.

차분한 등정이었다. 모두 조근조근 이야기했다. 등정 초입부터 가파른 소로(小路)라 산을 오르는데 몰두했다. 자연히 상념들이 날아갔다. 비움의 오르막길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12월 9일 용마산악회 2018년도 남회 산행에 참가했다. 대상산은 영산 영축산(靈鷲山)이다. 해발 681.5m. 경남 창녕군 영산면의 진산(鎭山)이다.

이른 아침 부산진역 부근에서 버스에 올랐다. 9~32회 1호차, 33~47회 2호차 탑승. 29회는 강성훈, 박성철, 이충원 그리고 필자넷이었다.

오전 10시쯤 영축산 아래 보덕사 앞 공터에 내렸다. 68명의 참가자가 빙 둘러서서 인사했다. 김법영(33회) 회장이 “추운 날씨에는 자체 발광이 좋은데 등산이 최고다”면서 자신이 이곳 출신인데, 정상에 오르면 전망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인연이 깊은 곳이다. 윤태훤(37회) 산행대장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출발했다. A, B 두 코스 중 29회는 보다 쉬운 B코스를 택했다.

영축산이 불교와 인연이 있는 이름을 가진데다 출발지가 보덕사 입구이다. B코스의 최고점인 신선봉(630m) 8부 능선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등산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추운 날씨지만 양지 바른 코스에 바람이 잔잔했다. 줄곧 오르자니 발뒤꿈치가 저려왔다. 뒤따르는 일행에게 길을 양보한다. 오르기도 오르면서 생각들이 달아난다. 걸어오르는 일에 집중해진다. 마치 구도자나 된 마냥. 산이름이 불교의 성지 영축산, 혹은 영취산이 아니던가.

신선봉에 올랐다. 난코스는 없었지만 은근히 만만찮았다. 맑은 일기라 사위(四圍)가 확 트이어 시원했다. 신선봉을 등 뒤로 하고 내려오면서 점심 먹을 곳을 찾는다. 한참 내려가다 길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자리 잡았다. 박성철 동기는 다음날 건강검진이라 점심을 가벼운 행동식으로 준비했다. 저녁은 금식이라니. 이충원 동기는 신선봉을 오르면서 이전에 크게 다쳤던 손목 부위가 충격을 받은 듯했다. A코스는 불가한 형편이었다. 찬 김밥은 서두름을 재촉했다. 땀이 식어서 느긋할 수도 없었다.

갈림길 표지판에서 A코스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B코스로 들어섰다. 영명사와 향교로 가는 길이다. 주류는 A코스로 간 모양이다. 하산길은 낙엽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온 것 같다.

영명사를 지나 향교 입구에 당도했다.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29회 남상경 동기가 아내와 함께 우리를 기다렸다.

남동문 부부는 대구에서 한의원원을 하고 있다. 거처가 이곳 인근의 현풍 비슬산 기슭이라 친구 보러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 산행을 빨리 마쳐 일행과 합류까지는 1시간 여유. 남동기는 “여기까지 왔으면 꼭 보고 가야 할 데가 있다”며 우리를 지척의 관룡산 관룡사로 데려갔다. 거기서 걸어서 용선대로 안내했다. 꼭 볼거리가 수십길 낭떠러지 위에 홀로 앉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 주변 전망이 일품이다. 합류 지점에서 친구는 돌아갔다. 인연의 신묘함을 느꼈다.

부곡온천 목욕에 이어 영산면 동리 시래기밥상 식당에서 남회식을 가졌다. 식사를 먼저 하면서 산행 이야기가 쏟아졌다. A코스는 암봉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절경이었다고 한다. A코스를 다녀온 13회 윤기갑 선배는 영축산 정상 쪽은 바위가 많아 꽤 위험했다면서 이날의 “도전기”를 풀어놓았다. 평소의 건강관리 비법도 소개했다. 아침에 학교 운동장 빨리 걷기였다.

김법영 회장이 집행부 소개와 인사를 했다. “함께하면 멀리 간다”는 건배사도 했다. 이태랑(13회) 박성철 동문이 건배사를 했다.

2018년 동창회장기 등반대회 시상에서 31회가 대상, 41회가 최우수상, 17회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1년 4차례 산악회 등반에 참가 기별 인원수로 순위가 정해졌다. 시상을 마치고 모두 밖에 나와 고기를 부르고 귀갓길 버스에 올랐다. 인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산행이었다.

김종명 동창회보 편집주간

# 켜켜이 쌓인 동문 역사 증언 “현재와 미래의 등불”



경남중 동창회보 50년 역사를 증언하는 창간호, 100호, 200호, 300호, 400호(좌로부터)의 1면 사진.

## 동문간 친목과 대화의 광장, 동창회 구심점 역할

경남중동창회보가 올해 6월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의 연륜이 지니는 의미를 간과했다. 늦었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동창회보 50주년을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흐르는 시간의 한 굽이를 매듭짓는 일이다.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잊지 말라는 금언(金言)을 떠올린다.

### 되돌아보는 회보 50년

경남중 동창회보는 1968년 6월 1일자에 창간되었다. 역사를 담은 그릇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타블로이드판으로 매월 4면 발행 형식으로 4천부 제작이었다. 인쇄는 신아일보에서 했다. 경비는 광고수입으로 충당했다. 서울의 재경동창회 사무실이 연락처였다. 김택수(회) 동창회장이 발행 및 편집인을 맡고, 운영위원 13명, 논설위원 12명, 편집위원 11명 등을 위촉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막강한 조직을 갖춰 출범했다. 재경동창회 총무였던 김경희(9회) 동문이 실무진에서 헌신적인 활약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택수 동창회장이 쓴 창간사 제목은 친목과 대화의 광장이었다.

1969년 6월 10일 동창회보 창간 1주년 기념 제13호가 발간됐다. 매달 발간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1주년 기념호에는 그동안 보도된 각종 기사의 집계를 소개했다. 1년 동안 회보에 소개된 동문의 수가 무려 2,226명이나 되었다. 동창회보가 전개한 동문찾기운동이 큰 성과를 본 것이다.

1970년 6월 25일 동창회보 창간 2주년을 맞아 제25호를 냈다. 부산 서울에서 기념좌담회를 각각 가졌다. 지면을 통한 동문의 참여 의식 제고와 대화의 광장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1년 6월 30일자 제37호는 창간 3주년 기념호였다. 기념사업으로 동창회 기금 1천만원 목표 1만구좌(1구좌당 1천원)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1971년 7월 31일자 제38호부터 '경고야사(慶高野史)' 연재물이 게재됐다. 개교 30년을 맞아 그동안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엮여져 나왔다. 모교역사의 보배라는 평가를 받았다.

1972년 10월 유신개헌 당시 회보배포중 지령이 내려졌다. 곧바로 해제돼 발행이 계속됐다. 이 일로 해서 문공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했다. 회보 제 92호와 제120호 기사건으로 당시 김경희 회보 편집위원이 군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1977년 9월 5일 지령 제100호가 발간되었다. 창간 후 9년 4개월 만의 성과였다. 4천부 발간에서 1만3천부까지 발전했다. 새로 찾은 동문을 소개하는 '어디서 무엇을'을 비롯한 동문찾기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킨 덕분이었다. 설문조사에 기사발길 지령 100호라고 표현했다. 제작진의 고충을 간접 표현한 것이다. 합심으로 이룬 결정(結晶)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제103호(1977년 12월 20일자)에 회보 축쇄판 발간 소식이 나온다. 4×6배판의 460쪽의 양장(洋裝)으로 창간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영인본이다. '용마의 슬기로운 쾌거'라고 자축했다. 축쇄판 제1집 추가부수까지 1,500부 완판됐다.

1987년 9월 30일 동창회보 지령 제200호가 발간되었다. 16쪽의 특집으로 꾸몄다. 인고와 끈기로 동문가교 역할을 해온 결과물이었다. 당시 정동식(회) 재경동창회 명예회장은 "김경희 편집위원의 노고가 200호 금자탑의 초석이 되었다"고 치하했다. 회보 제작에 참여한 동문의 봉사정신과 사

명감에 의존한데 대해 자성의 말이 쏟아졌다.

동창회보는 1987년 12월 28일자 제202호부터 가로쓰기 체제로 변화하는 등 지면 혁신을 단행했다.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전용으로 제작하며, 휴먼스토리 발굴과 독자란을 신설키로 했다.

지령 제204호까지 재경동창회가 주관하여 제작되던 동창회보는, 제205호(1988년 5월 31일자)부터 지금까지 부산(본부)동창회에서 제작을 맡았다. 그때 송두호 동창회장은 회보의 부산발행에 즈음하여 "제자리 찾기의 순리성과 위계질서에 대한 회복의지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말했다.

1990년 2월 5일자 지령 제222호에 김근준(1회·작고) 고문의 '동창회 발자취 재조명' 인터뷰가 실렸다. 여기서 김 고문은 동창회보를 부산에서 발행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재경에서 회보발행을 고생하면서 말아 왔기 때문에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부산발행을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동창사회의 인식과 가치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

교가 있는 부산의 본부동창회의 위상을 동문 스스로가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두드러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을 없앨 확실하고 단호한 설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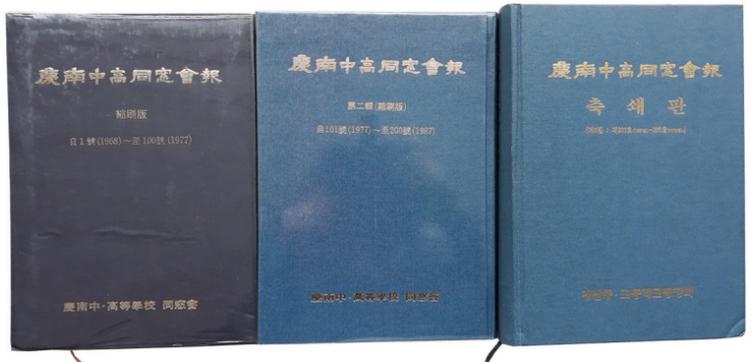
1990년 9월 29일자 제227호에 회보 축쇄판 제2집(101~200호)이 나왔다고 소개됐다. 1집 축쇄판이 나온 지 12년여 만의 쾌거라고 했다.

1998년 6월 30일 동창회보 창간 30주년에 지령 제300호가 나왔다. 'IMF 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용마들은 동창회를 중심으로 "힘들 때 더욱 뭉치자"며 용마가족의 결집과 단합을 외쳤다.

2004년 1월 17일자 제344호에 동창회보 축쇄판 제3집(201~300호) 발간 소식이 게재됐다. 1990년 8월 제2집을 내고 14년 만의 쾌거였다.

2014년 2월 25일 지령 제400호가 나왔다. 김경희 고문의 특별기고가 실렸다. "우리 회보는 선배라는 중적인 관계를 횡적으로 엮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가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엄중한 소명을 감당해왔다"며 동창회보의 영원을 기원했다.

그로부터 4년 10개월이 흘러 오늘자에 421호가 발간됐다. 반백년을 훌쩍 넘긴 대장정(大長程)이었다. 그리고 100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벌써 내디뎠다.



동창회보 축쇄판 3권 1~100호, 101~200호, 201~300호의 회보가 각각 실려 있다.

# “편집권 지키고 사보화(私報化) 경계해야”

## “회보 받으면 한 송이 들국화 만나는 기분”

### 눈길을 붙잡는 감동의 글 발췌

경남중고 동창회보 제1호부터 제421호까지에는 술한 감동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이 글들 중에 유난히 눈길을 붙잡는 문장들이 있다. 인연 있었던 분의 글이거나 혹은 글의 제목이 강렬한 울림을 주거나 한 것들이다. 제 300호 이후에 실려 있다.

▲제13호(1969년 6월 10일) 4면 ‘한살박이 동창회보를 말한다’(김중하·11회·당시 경남학원 강사) = “어디를 가서 찾아봐도 동창회보가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곳이 있을까. 한마디로 놀랍고 기쁘다. 내가 갖고 동창회가 자랑스럽다. 교문을 나서면

그만이기 쉬운 사회생활에서 서로가 형제임을 재확인하고 또한 믿고 의뢰할 형이 있음이 든든하다.”

▲제37호(1971년 6월 30일) 6면 창간 3주년 앙케트 중 회보 받은 소감(정인택·7회·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삭막한 신हर리에서 땀 흘려 거닐다가 한 송이 들국화를 만나는 기분.”

▲제300호(1998년 6월 30일) 4면 특별기획(이창우·8회·언론인) = “상마도의열가악(相磨道義悅歌樂·서로 도의를 닦고 가악을 즐긴다). 나는 모교와 동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옛 글귀를 떠올린다. 일생을 통해 함께 진리를 연마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일이 학창시절을 빼고는 드물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교는 우리 인격 형성의 모태가 되고 동문의 제2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동문은 어느 때가 되면 떠난다. 그러나 동창회는 면면히 이어져 나간다. 동창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되거나 중립성의 가치기준을 상실하게 되면 엄청난고 돌아갈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보가 편집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가치기준을 잃어서도 큰 문제이고, 특히 사보화(私報化)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01호(1998년 8월 1일) 2면 시평(김봉길·8회·당시 경남고 교장) =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덕목도 분명히 바뀌었다. 배정받은 학생들도 소중한 경남고 학생이다. 이 학생들을 개성과 소질에 맞추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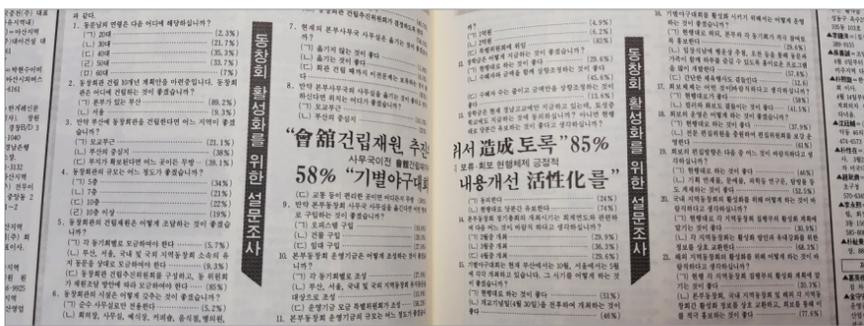
서가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인 인간으로 키워가는 것이 오늘 교육현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향후 어떤 발상에서든지 경남고 명예와 기운(氣運)을 끼르게는 언행이 재현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제313호(1999년 12월 1일) 2면 시평(김중하·11회·당시 부산대 교수) = “경남중고 동문은 형제요 한 기운 큰 집안이다... 울창한 숲은 한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지혜가 생겨나고 더 날래질 것은 정한 이치다.”

▲제351호(2005년 1월 28일) 2면 신년사(정행권·9회·동창회장) = “동창회는, 용마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이불’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화투볼’ 주변에 뽀뽀이 모여져야 뜨거운 우정이 확산되고 발전이 가속화될 것 이라고 믿습니다.”

# “동창회관은 부산 편리한 곳에 뒀야”

## 회보 제232, 제233호에 설문 결과 내용 증언



동창회보 제233호에 게재된 동창회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수록 사진

제232호(1991년 4월 30일) 동창회보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21가지의 질문과 응답 내용이 제233호(1991년 5월 30일)에 수록돼 있다. 특히 박종찬 현 총동창회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동창회관 구입과 관련한 동창회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중지(衆智)를 모았던 것이다. 이는 오늘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사에 따르면, 동문들이 희망하는 회관은 서울(9.3%)보다는 부산(89.2%)에, 또 부산의 중심지(38%)나 부지가 확보되면 어디든 무방하다(39.1%)고 했다. 편리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원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또 회관 규모에 대해서도 5층이 알맞다가 34%, 7층 21%, 10층 22%를 보여 현실성을 반영했다.

## 동창회보 발간 변화 과정

**최초 4면에서 24면으로 양적 성장**  
동창회보는 기본 4면 체제, 매월 발간 형식으로 창간(창간호는 6면 제작되었다. 이 체제는 오래 지속됐다. 대략 제220호 무렵부터 8면 체제 중심으로 하되 제242호까지 4면 발행도 섞여 나왔다. 제243호부터는 8면 체제를 지속하다가 제382호(16면)부터 지면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제385호 20면, 400호 24면, 420호 24면, 오늘까지 421호 24면 제작으로 변화해 왔다.

**현재는 7천부 인쇄**  
동창회보는 창간 시 4천부를 발간, 각기별로 무료로 배포했다. 그로부터 호응이 많아 제100호 제작 당시에는 1만3천부나 발간했다. 제200호는 1만7천부를 발행했다. 2010년 12월말 구독료 납부자는 2,088명이었다. 2011년 1월 20일자 제382호에 구독료 인상 안내가 나왔다. 종전 연 2만원에서 연 3만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2011년 12월말 구독료 납부자는 2,959명이었

다. 1만6천부 발행이었다. 2013년 11월 5일자 제399호 14면 전면 광고에 의하면, 우편으로 회보 받아보는 동문 수가 1만5,100명인데 반해 구독료 납부자는 3,687명(10월 25일 현재)이었다. 2014년 2월 25일자 제400호는 발간이 늦어졌다며 사과문을 실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구독료 납부자는 3,942명이었다. 1만5,200여 동문이 회보를 받아보았다. 그뒤부터 납부자가 감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발행부수를 줄였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납부자는 2,629명이었으며 7천부를 인쇄했다. 2018년 12월 12일 용마의 밤 행사 때는 3천부 납부를 돌파했다.



동래·금정지구 동창회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온천장 봉식당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해운대지구 동창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해운대구 소재 식당 경복궁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 다져진 친목으로 품격의 만찬 즐겨

### 동래·금정지구 동창회 송년회

동래·금정지구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온천장 봉식당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지난 9월초 금정산성 야유회 때 다져진 유대 강화와 친목도모가 꽃을 피운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송년회를 만들었다.

이상화(25회) 동래·금정지구 동창회장은 특유의 간단명료한 인사말에서 “올 한 해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를 보낸다. 내년에는 보다 밝은 한 해가 될 것을 믿는다”며 많은 동문의 참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가 제 임기 때 만들어져 애착이 간다”며 조직의 안정화에 노력한 집행부를 치하했다.

남진현(19회) 지문위원은 “동창회 모임은

나오면 나올수록 재미있다”며 참여의식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정규(25회) 분과위원장은 감기에 걸려 열흘을 쫓잡 못하다 봉식당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박종찬 이상화 두 동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왔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박총동창회장이 조니워커 블루 1L 3병을 찬조한 것을 비롯, 송정규 분과위원장,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동창회장, 권두성(38회) 동문 등 많은 동문이 찬조했다.

송년회는 허심청 브로이에서 2차 생맥주 파티로 이어졌다. 한편 봉식당은 이수백(23회·봉생병원 의사) 동문의 부인이 경영을 맡고, 프랑스 요리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셰프로 있는 미쉐린 3스타급의 품격이 있는 곳이다.

## 서병수 동문, 용마의 품에서 재충전

### 해운대지구 동창회 송년회

“연어가 회귀하듯 돌아온 그는 용마의 품에 안겼다. 깊게 벤 지난 상처는 아물었고 용마의 동산에서 재기의 기운을 얻었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해운대구 소재 식당 경복궁에서 열린 해운대지구 동창회 송년회에 참석한 서병수(25회) 전 부산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서 동문은 동문들과 격의 없이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창회의 포용력과 용마의 의지 등을 읽을 수 있었다.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구동창회 중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미난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후배기수들의 참여가 많아져 젊어지는 기분이다. 선배님들

잘 모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총동창회 현황 설명을 했다. 동창회관 구입 기금 조성 과 관련, 서병수 동문이 3천만원 고액 기부 에 동참했다고 발표, 큰 박수를 유도했다.

서병수 동문은 “(선거 이후) 그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해운대지구 동창회는 추억이 깃든 곳이다.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정윤희 회장이 일을 잘 해줘 든든하다”며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박종찬 회장, 서병수 동문, 이상화(이상 25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김법영(33회) 고문 등이 금일봉을 쾌척했다.

투고 ▶ 보내실 곳:  
환영 yongma2007@hanmail.net

## 기록적 참가율에 모임 활성화 기대

### 남부산지구 동창회 송년회

지난 11월 29일 용호동 섭자리 이가한 우에서 열린 남부산지구 동창회 송년회는 40명 참가를 예상했으나 43명이 참가, 오랜만에 기록적인 참가율을 보였다. 지난 모임에서 집행부가 참가인원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말을 실천한 셈이다.

조선(34회) 남부산지구 동창회장은 “좋은 선배들이 모임에 많이 나오면 조직의 안정감이 생기고, 후배들이 자연히 많이 나오게 된다. 선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기장드림볼파크에서 열린 경남고 야구부 후원의 밤 및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고 바빠 이 자리를 찾은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남부산지구의 참여 인원 확대를 통한 지구 활성화를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상화(25회) 동래·금정지구 회장과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은 각각 금일봉을 전달하며 남부산지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참가자 선물은 텀장갑으로 조선 회장이 마련한 것이었다. 2차 모임 경비는 이종희(32) 동문이 협찬했다.



남부산지구 동창회 송년회가 지난 11월 29일 용호동 섭자리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 넘치는 박력과 기백으로 결속력 과시

### 중부산지구 동창회 송년회

‘중부산지구 동창회는 뭔가가 있다.’ 결속이 잘 되는 이유를 말한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송년회 자리서 그 답을 찾았다. 여가의 주도(酒道) 내지는 주법(酒法)은 ‘남자의 품격’을 말하는 양 박력과 기백이 넘쳤다. ‘위하여’ 삼창과 완샷 이후의 박수 삼창은 동문으로서의 일체감을 불러오기 충분했다. 다가올 새해가 황금돼지 해라서 모임장소를 정한 제주흑돼지 식당이 술잔이 기울 때마다 들쭉거리는 듯했다.

임무홍(25회) 회장은 “중부산지구 동창회가 으뜸 지구동창회가 되기 위해 집행부가 엄청 노력했다. 임철호(24회) 전임 회장이 다진 초석 위에 저의 미력을 보탤다”면서 “내년에는 새 회장이 선출돼 더욱 발전된 모습의 중부산지구 동창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각 지구동창회 송년회를 순회 중인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중부산지구 동창회의 견실함에 대해 치하하고 동창회 현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협찬 및 찬조=박종찬 총동창회장 발렌타인 30년산 1병과 금일봉, 임무홍 중부산지구회장 20만원, 남진현(19회)지문위원 10만원, 최상원(19회) 5만원, 임철호(24회) 20만원, 오문세(35회) 10만원, 박이현(38회) 동문 발렌타인 30년산 1병.



중부산지구 동창회 송년회가 지난 11월 30일 부용동 제주흑돼지 식당에서 개최됐다.

재경소식

# 국토종단 이어달리기 캠페인 본격화

## 재경동창회도 회관 매입 추진

재경동창회는 경남중고 서울 동창회관을 건립이 아닌 매입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동창회관 추진 TF(팀장 전희수·31회) 전체 회의에서 강실근(23회) 경발위 운영본부장은 읍저버로 참석해 “경발위 이사회가 기존 건물 매입해 동창회관 마련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가급적 임대수익률이 좋은 강남 3구의 건물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동창회의 동창회관 구입 가용자금은 현 여의도 사무실 매각대금을 포함, 약 7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경동창회서 전폭적인 지원 약속

2019년 모교 개교 77주년 기념 국토종단 이어달리기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행사는 용마러너스(회장 유영상·27회)가 주관하고, 재경동창회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재경동창회 사무실에서 재경동창회 집행부와 용마러너스 실무진 간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유 회장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재경동창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명규(24회) 재경동창회장은 “모교의 빛나는 전통과 영광을 릴레이한다”는 행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재경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종단 이어달리기 행사 대책회의 모습.

사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총동창회와 긴밀히 협의,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동창회 집행부는 12월 12일 부산롯데호텔

에서 ‘용마의 밤’ 행사 전 총동창회 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 가족적 분위기 50주년 기념 송년잔치

창원지역동창회, 원로에 특별상 수여



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4일 오후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창립 50주년 용마의 밤 행사를 열었다.

경남중고 창원지역동창회가 12월 4일 오후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창립 50주년 용마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 참가자 60여명 중 6회 안종무, 10회 이기돈 하영수, 12회 안영규 동문 등을 비롯, 원로급 동문들의 참여가 많아 가족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영주(28회)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까지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특별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찬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집행부의 원정 참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동창회 현황 전반

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동창회관 구입과 회보 구독료 납부 목표 달성 등의 절박성을 이야기했다. 창원지역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 수상자는 용마대상 이경재(13회) 동문, 특별상 안종무, 이기돈, 하영수, 안영규, 이수창(17회), 김재근(19회), 김진환(20회) 동문, 공로상 정승수(19회), 김종하(27회) 동문 등이다.

최고참 안종무 동문은 격려사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끌어온 50년 역사이다”며 이 행사를 개최한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 집행부 세대교체...차의수(29회) 신임 회장 선임

김해지역동창회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성료

경남중고 김해지역동창회가 또 한 번 역사의 장(章)을 넘겼다. 지난 12월 5일 오후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행사에서 최연삼(28회) 회장 체제의 집행부가 교체됐다. 창립 51년의 연륜에 걸맞은 순차적 세대교체였다.

차의수(29회)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김해지역동창회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동문들과 자주 만나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연삼 전임 회장은 “동문들의 많은 도움으로 큰 무리 없이 임기를 마쳐 기쁘다. 앞으로 50년을 향해 모두 화합하고 단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참과 협조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40대 기수 등 후배들의 동문회 활동 참여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희망이 크게 보인다”고 말했다.

공식적 모임을 매월 가져 동문간의 정의

(情誼)가 두텁다는 평을 듣는 김해지역동창회는 이날 행사에 50여명이 참가, 우애와 화목의 정겨운 만남의 시간을 엮어갔다. 이날 김용진(36회) 사무국장(황금열쇠 1

돈)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행운권 대상은 조관제(25회) 고문 가족휴롬원역기 1대이, 가요제 대상은 최민석(35회) 부회장(상등)이 각각 차지했다.



김해지역동창회가 지난 12월 5일 오후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행사를 가졌다.

# “회원 참여도 제고 방안 강구하겠다”

울산지역동창회 권기택 신임 회장, 재건 기치 들어

경남중고 울산지역동창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합찬재건의 도약을 시작했다. 지난 12월 6일 오후 울산 터미널식당에서 열린 송년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권기택(28회·사진) 동문이 재창립에 버금

가는 동창회 재건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권 신임 회장은 지난 12월 15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당면 현실을 직시하여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형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고참 선배와



사무국장(황금열쇠 1)으로 임명,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동창회는 김성득(24회) 직전 회

장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 명맥만을 유지해 오던 차였다. 지난 수년간 선배 기수의 고령화와 후배기수의 참여도 저하 등이 겹쳐 급격한 회원 감소 현상으로 조직이 유명무실화되는 위기까지 치렀었다.

권 신임 회장은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울산지역동창회의 부흥은 힘들다. 울산지역 동문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기회·동호회 소식

#### 14회 산악회 = 단풍놀이



지난 11월 9일 마지막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 일대를 다녀 왔다. 대부분 여유롭게 선운사, 도솔암 입구까지 가서 단풍 관광을 하고, 일부는 도솔암까지 갔다왔다. 4시까지 귀경했다.

◇참석자 : 김중수 남창희(+윤경숙) 김익명(+장정애) (+박인선) 김 향 오성환 권 명 서관주(+박경희) 최 무

#### 17회 동기회 = 가을야유회



지난 10월 28일 동기 가을야유회를 다대포 고성횃집에서 가졌다. 일부는 물운대를 한바퀴 돌면서 환상적인 풍광에 상쾌한 가을 날씨를 즐겼다. 송유근 동문이 수확한 단감을 가져와 나누었다.

◇참석자 : 김길호 김대희 김병문 김성락 김용남 김종국 김준위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종구 박형홍 박해두 손영문 송유근 송인문 신정아 심상욱 오태식 윤수성 이진우 이범열 이정보 최신웅 하영수 박창호부인

#### 18회 동기회 = 송년의 밤



지난 12월 10일 마리아블루키친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 19회 산악회 = 송년산행



## 25쌍백회, 경남중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 모교 발전 기금 300만원 기탁

“까만 교복 양쪽 소매의 흰색 선 두 줄’ 그것은 어린, 아니 젊은 우리의 자긍심이었고 자랑이었으며, 꿈과 희망의 빛줄기였다.”

예전 경남중학생들의 교복에 장식된 ‘쌍백선’을 말한다. 쌍백선 교복을 입고 보무당당(步武堂堂)하게 걸어가는 경남중학생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때의 추억을 간직한 동문들이 까리까리 모여 모임을 갖고 있다.

올해 경남중 졸업 50주년을 맞은 25회 졸업생 모임인 ‘25쌍백회’(회장 김유환)는 지난 11월 23일 조출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30여명이 참가했다. 모교에 발전기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1968년 2월 경남중학 25회로 졸업하고 경남고, 동아고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던 동기생들이 졸업 42년째인 2010년 모임을 결성하였다. 나이 60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부산 44명, 서울 20명이 가입, 올해로 8년째 격월로 모임을 갖고 있다.

◇참석자(무순)=한준석 박종찬 김종현 김유환 박세철 장세훈 이대우 김익수 김길수 김은주 장양광 이상화 윤태석 조병욱 임무홍 한봉재 박근석이 태근 양계현 탁준길 황 철 박광용 신현대 이동석 정동운 장승엽 여성조 옥동훈 조광제 박일호 이수영 김진영.



‘25쌍백회’는 경남중 졸업 5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지난 12월 16일 진눈개비가 날리는 영하의 날씨 속에 구룡산-대모산 송년 산행을 다녀왔다. 정상 부근 공터에서 정상주와 간식을 먹은 후 수서역으로 하산. 아탑역에서 최홍표 회장과 합류, 11명이 활어로 산행송년파티를 즐겼다.

◇참석자 : 권정덕 김인선 백용환 이복춘 이상만 이철원 임유홍 정덕환 조정래 이종선

####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12월 9일 백양산 일대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코스는 구포무장애숲길-운수사-애진봉-백양산정상-공룡발자국화석-성지수원지입구이다.

◇참석자 : 노태호 탁준길 이장훈 옥동훈 황곤태 김구하 여성조 이태근

#### 20회 산우회 = 송년 산행



지난 12월 16일 동기 14명이 겨울비 속 우산과 우의를 착용하면서 금정산 송년산행을 다녀왔다. 산성 고향식당에 도착해 납회 파티시간을 가졌다. 김일석 동기가 송년선물, 장상배 동기 금일봉, 김두영 동기 맥주 등 협찬. 동기 산우회장 정승창.

#### 25회 동기회 = 가을여행 & 11월 산행



지난 11월 10~11일 동기생 24명이 1박2일로 경북 청송 주왕산, 주산지 산행 및 여행을 다녀왔다.

#### 26회 동기회 = 에코투어



지난 12월 8일 김영훈 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에코투어가 동기들의 많은 성원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 : 강수남 강영병 권종대 권해국 김상현 김영훈 김정곤 김종우 김태규 김현룡 박동기 박승범 박재창 박철홍 배흥규 윤흥석 이경국 이상원 이영덕 이영학 이명섭 이춘섭 장종언 정인수 최수일 최의수 추기복 추창구 하원규 허진호 현동우 홍순하 황광수.



27회 동기회 = 송년의 밤



지난 12월 14일(금)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유명호 회장 부부를 비롯해 27쌍 부부 54명과 싱글 참석 12명 등 총 66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태평무, 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27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11월 11일(일) 가덕도 연대봉(336차) 정기산행을 가졌다.

◇참석자: 강봉호부부 김석운부부 김지원 박찬석 박현호 방문성부부 윤석건 윤지한부부 이성득 이종찬부부 장기남 홍종만부부.

36회 동기회 = 11월 모임



지난 11월 10일 이기대를 산보하고 백운포에 있는 식당에서 생선회를 먹고 광안리 라이브바에 가서 즐거운 밤을 보냈다. 여학생 포함, 34명이 끝까지 함께 했다.

◇참석자: 김경찬 김동기 김동일 김동현(+1) 김상백 김정현 김병주(+1) 김창일(+1) 김한교(+1) 박용철 송준호 성귀호 신승렬 양호진(+1) 우한주 이규진 이동희 이성호 이학수 임창섭 임창의 장창용(+1) 정병기 정홍원 정윤희 차동엽 최상도 최태섭.

36회 울산동기회 = 12월 정기모임

36회 울산동기회는 지난 12월 3일 울산 남구 삼산동 동원초장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차기회장에 강태원(대민항 공여행사 대표)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참석자: 강태원 김지현 박성만 박철종 소기호 이원석 정윤희 제갈재환 최정하.

# 중국 상해지역 동문회, 새 집행부 구성

## 조진욱 회장 “친목과 소통 강화”

경남중고 중국 상해지역 동문회가 최근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고, 동문 간 친목도모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임 회장은 조진욱(45회) 동문, 부회장은 김인호(46회) 동문이다. 조 회장은 “상해에 흠어져 있는 동문 선후배를 월 1회씩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해동문회는 고국의 동문이 상해 방문 시 사전 연락을 주면 번개형식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했다. 연락처=회장 조진욱(45)+86.18616577797, 부회장 김인호(46) +86.18616547791, 직전회장 박창주(34) +86.15618948835.

상해동문회에는 김성진(19), 조현수(30), 권장우(34),



경남중고 중국 상해동문회가 최근 회장단 개편을 하고 함께 지리한 모습.

김명수(34), 박창주(34), 정원철(34), 최원철(43), 조진욱(45), 김인호(46), 김중규(50) 동문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조현수 동문은 금명 본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42회 동기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지난 12월 7일(금) 42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용호동 이기찬우에서 개최했다. 총 30여 명 동기가 참석, 2019년 회칙개정과 신임 동기회장 선임에 이어 새로운 임원조직을 개편하였다. 신임 회장 신봉준, 직전 회장 박동식 동문.

45회 동기회 = 송년의 밤



지난 12월 7일 자갈치 아리아비페에서 45회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윤원욱 영상편집위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53회 동기회 = 11월 모임



지난 11월 10일 53회 동기모임이 남구 대연동 마야양고기(53회 안재영 동기 운영)에서 열렸다. 이원준 동기회장을 비롯, 멀리 과주에서 달려온 곽상훈 동기까지 모두 23명이 참석. 2019년 홈커밍데이를 잘 치르자는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 명단: 이원준 문희규 안재영 권기용 최동환 박성영 박현근 곽상훈 선재원 인영재 우재준 송호백 이성우 한동인 변용식 이원준 황명수 이진수 송승윤 김재한 임동녕 김삼욱 강덕천 손희성.

도서반 출신 동문회 = 번개모임



도서반 출신 동문들이 지난 11월 7일 오후 7시 부산 민락동 수변공원 인근 용마횃집에서 번개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명단: 현응열(29회) 김대식(31회) 명문장 박철종(36회) 윤경만(38회) 윤성한(41회 · 총무) 신지식(42회) 이강훈 전홍도(43회).

〈18면에 계속〉



# 80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구성 논의

## 총동창회·재경동창회 집행부 회의

지난 12월 12일 오후 4시 '용마의 밤' 행사 개최지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옆 회의실에서 경남중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간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총동창회에서 박종찬(25회) 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회보 편집주간이, 재경동창회에서는 이명규(24회) 회장 강실근(23회) 경발위 운영본부장 문창진(25회) 수석부회장 강성보(27회) 용마지 편집장 심재구(31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80년사 발간과 관련, 조직 구성과 추진 일정, 경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조직은 총괄 편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부산과 서울에 각 2명씩 두는 등 2019년 3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2019년 자료 수집, 2020년 집필, 2021년 감수와 편집, 2022년 4월 전 인쇄 발간 등의 로드맵을 잡았다. 예산은 부산과 서울이 분담하되 회장단이 책임져서 2019년 말까지 모금키로 했다. 이 안건에 대해 회장단은 실무조직이 갖춰지는 대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모교 개교 77주년 기념 및 3·1절 100주년 기념 국동종단 이어달리기 대회를 총동창회에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용마러너스가 주관하고 재경동창회가 후



지난 12월 12일 오후 '용마의 밤' 행사 개최 전에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간 회장단 회의.

원하는 형식으로 추진 중에 있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여 2019년 3월 1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하여 모교 개교기념일인 4월 27일 낙동강하구언 도착, 4월 30일 경남고 운동장 입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총동창회 측에서 밀양 지역에서부터 부산 모교까지 러너 배치 등을 고려중이다.

경남고 야구부 지원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다. 재경동창회는 재정적 지원도 않는 터에 더 이상 알기알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19년 1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에 총동창회 집행부가 참석하기로 했다.

## 김해지역동창회 = 백두산 산행



지난 11월 25일 김해시 대동면 백두산 등정을 했다.  
 ◇참가자 : 이상운(23) 차의수(29) 황성철(31) 배종찬(32) 김용진(36).  
 뒷풀이 찬조 : 1차 차의수(29) 차기회장 2차 박광수(29) 동문.

## 생우회 = 정기모임 및 송년회



지난 11월 10일(토) 오후 6시 중앙동 소재 다물촌(생우회 40회) 황성현 동문 운영 양급창집에서 생우회 정기모임 겸 송년회를 가졌다. 9명이 참석, 조촐하게 즐거운 밤을 보냈다.

◇참석자 : 이민우(28) 이진호(32) 박태종(33) 김태훈(33) 이충고(37) 박용한(39) 윤원욱(39) 황성현(40) 신봉준(42).

## 경불회 = 제23차 정기가족법회



지난 11월 17일 오후 5시 부산시청 인근 법계정사에서 약 30여명의 동문불자와 가족, 그리고 법문을 청한 대구 포항 경주 등지에서 모인 범일(梵日 - Brahmasun) 스님의 신도 등 60여명의 대중이 참여하여 올해 마지막 법회를 가졌다.

# YS 서거 3주기...홍상과 재회

○...지난 11월 22일은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 기분이 든다는 소설(小雪)이었다. 절기에 맞게 구덕산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다. 제14대 대통령 고(故) 거산(巨山) 김영삼(YS·3회) 동문의 서거 3주기를 맞아 그의 홍상이 생각나 경남고 교정을 찾았다.

YS 홍상 제막식을 가졌던 서거 1주기 때의 번잡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 낙엽이 뒹구는 교정은 침묵의 시간을 지나는 듯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사자후를 내뿜는 거산의 자태는 청동의 재질감이 더해져 무척 당당해 보였다.

'민주화의 영웅'으로 9선 국회의원인 '정치 9단' YS. 그의 홍상은 많은 전설과 이야기거리를 품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스토리텔링이 엮여지지 않았다. 재조명 작업이 미진한 탓이다. 교정을 떠나면서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정치입문자는 경남고 교정에 있는 YS 홍상을 한번 만지고 나면 성공한다는데...'



서거 3주기를 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홍상.

# 2018년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4,000명 도전 현황

(2018. 12. 17 현재)

기수	목표 (2013년도 달성)	2018	기수	목표 (2013년도 달성)	2018									
1회	2	0	16회	128	78	31회	113	88	46회	15	30	61회	0	0
2회	1	0	17회	115	73	32회	61	47	47회	7	13	62회	0	0
3회	19	8	18회	145	95	33회	74	56	48회	2	3	63회	0	0
4회	29	10	19회	153	97	34회	54	43	49회	10	47	64회	0	0
5회	30	12	20회	111	74	35회	70	45	50회	3	37	65회	1	0
6회	41	18	21회	156	106	36회	58	85	51회	6	25	66회	0	0
7회	50	32	22회	131	87	37회	42	40	52회	4	39	67회	0	1
8회	54	31	23회	167	102	38회	45	51	53회	2	5	68회	0	0
9회	62	29	24회	154	124	39회	59	61	54회	1	6	69회	0	1
10회	73	47	25회	128	185	40회	61	38	55회	1	1	70회	0	0
11회	119	68	26회	140	107	41회	44	31	56회	0	0	기타	68	50
12회	125	86	27회	114	90	42회	18	19	57회	1	0	총인원	3,942	3,059
13회	136	105	28회	113	90	43회	29	19	58회	0	2	2018년도 목표		4,000
14회	113	80	29회	161	120	44회	29	16	59회	0	0			
15회	112	84	30회	165	112	45회	17	10	60회	0	0			

# NEWS 동문동정

## 박정국(30회) 동문, 현대모비스 사장 취임



박정국(30회) 동문이 연구개발(R&D) 출신 최초로 현대모비스 사장에 선임됐다. 박동문은 남양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했으며, 미국기술연구소(HATCI·해치) 소장도 역임했다. 현대모비스가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친환경차, 커넥티비티 연구개발 행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연구소와 연구원들을 잘 아는 '정통 엔지니어' 박정국 사장을 전진배치했다는 평가다.

## 황규태(33회)동문, 아시아드CC 새 대표

황규태(33회·전 베이사이드골프클럽 대표이사) 동문이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 신입 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12월 4일 아시아드CC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임된 황 동문은 풍부한 골프장



운영 경험으로 내년 LPGA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황 동문은 주총 다음날 곧바로 취임,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2+1 원칙'에 따라 2년 뒤 중간 평가를 거쳐야 남은 임기가 보장된다. 동아대를 나온 황 동문은 경남 양산시 에이원컨트리클럽과 드비치골프클럽에서 근무한 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아시아드CC에 인접한 베이사이드GC 대표이사를 맡았다.

## 전병호(42회) 동문, 최우수예술가상 수상



성악가 전병호(42회) 동문이 지난 11월 21일 더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아시아브랜드

### 알림

#### 각 동기회 회장 새해 구상 다음 동창회보 게재... 원고 보내주세요

동창회보 편집실에서는 각 동기회 회장의 신년도 구상과 사업 계획, 포부 등을 2019년 2월말께 발간할 회보 제422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각 동기회 회장은 이 내용을 200자 원고지 2장 분량으로 써서 오는 2월 1일까지 총동창회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글이 도착하지 않으면 게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물 사진 1장도 첨부해주시시오.

보내실 곳 : yongma2007@hanmail.net

###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주범국(5회) = 12월 10일 작고
- ▶김종철(11회) = 11월 11일 작고
- ▶조용갑(13회) = 12월 8일 작고
- ▶황홍석(14회) = 10월 13일 작고
- ▶신봉문(19회) = 11월 28일 작고
- ▶이승우(19회) = 11월 11일 작고
- ▶김상수(23회) = 5월 18일 작고
- ▶최기호(34회) = 11월 17일 작고

### 바로 잡 습니다

제420호 23면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 기사 중 '손숙보(21)'는 '손석보(21)'의 잘못기에 바로잡습니다.

## 어디서 무엇을?

### <19회>

△김인철 = 빙모상. 12월11일 아산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공정봉 = 11월18일(일) 12시10분 차남 상훈군이 테크노마트웨딩시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임우근 = 모친상. 12월20일 삼성의료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 <20회>

△남경열 = 모친상. 11월19일 남천장례식장에서 발인. △조용호 = 모친상. 11월28일 감천중앙U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 <23회>

△박기욱 = 11월23일 민락동 회센터에 위치한 해초록에서 고회연을 가졌다.

### <24회>

△김준기 = 모친상. 11월18일 원광대의대 산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태영 = 모친상. 11월25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발인. △성충기 = 11월24일(토) 15시 장녀가 여의도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성표 = 11월

24일(토) 17시 차남이 엠플러스컨벤션웨딩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상우 = 12월8일(토) 13시 딸이 W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강성철 = 12월8일(토) 15시 막내딸이 W웨딩 백스코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동희 = 부인상. 12월17일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 <25회>

△장대락 = 12월22일(토) 12시 차녀 은영양이 그랜드엠베서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신철 = 12월15일(토) 15시 장녀 보미양이 미국 시애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26회>

△김원정 = 빙모상. 11월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발인. △서경호 = 11월 23일(금) 17시 딸 예지양이 케일리베넷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유상 = 빙모상. 12월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철주 = 12월16일(일) 13시 차녀 은선양이 그랜드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한경 = 12월16일(일) 12시30분 차녀 예운양이 이펄가모 선릉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일제 = 12월15일(토) 13시 아들 영래군이 호텔농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원규 = 모친상. 11월9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 <27회>

△김대용 = 「바다와 그레」신장개업.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126. T.051-263-0601 △박정민 = 모친상. 11월9일 울산하늘공원에서 발인. △유성우 = 11월18일(일) 15시 차녀 청희양이 더 그레이스캘리 안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유영호 = 1월5일(토) 12시 장녀 은지양이 센텀시티w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 <28회>

△김대윤 = 12월8일(토) 17시 장남 형준군이 명동성당내 파밀리아채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창준 = 12월2일 15시 장남이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광제 = 12월8일(토) 11시30분 장남 송희군이 센텀 사이언스파크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주종목 = 12월22일(토) 12시20분 아들 현준군이 창원 풀만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29회>

△손태권 = 1월12일(토) 12시30분 장녀 은지양이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종포 = 빙모상. 11월16일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임광열 = 부산시와 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한 [제44회] 전국공모 부산 미술대전] 서예부분에서 특선 입상. 11

월29일~12월25일(화)까지 부산현대미술관(을숙도) 전시. △전병철 = 모친상. 11월18일 대구 카톨릭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현계성 = 모친상. 11월16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30회>

△공영호 = 1월1일(화) 12시 차남 원승군이 중국 산시성 이춘시 천천어항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배경조 = 모친상. 12월4일 부산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신광배 = 12월16일(일) 14시 장녀 영미양이 서울 엘티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윤광식 = 12월8일(토) 12시 장남 무원군이 KW컨벤션 대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재순 = 12월1일(토) 13시 장녀 은희양이 대구 MH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부광 = 12월22일(토) 13시 장남 민찬군이 더 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흥래 = 빙부상. 12월7일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34회>

△김규혁 = 빙부상. 11월23일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안도경 = 모친상. 12월7일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현경식 = 11월10일(토) 12시 아들이 하남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2018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 )는 선납부자 ● 총 3,059명 2018. 12. 17.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3회(8명)

노관택 문병집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정원준 하덕모

### 4회(10명)

김경식 김희수 송호길 양중학 이남규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조성일 황갑생

### 5회(12명)

김석호 김인택 박장후 박종구 우명수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최영철 최원규 홍관식

### 6회(18명)

김상업 김중철 김태환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이강윤 이상기 이해훈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석원

### 7회(32명)

강병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삼현 김우영 김중순 김중경 김태배 김호웅 노상석 노해규 박영섭 박한배 배건식 배중현 소진은 송외득 양종완 오동환 오장은 원용부 윤용우 윤진현 이동우 이창범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허중우 (김삼현, 임의택 2019년)

### 8회(31명)

강성태 구분섭 김상식 김영길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문창화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현 배주원 안종열 엄덕양 이윤조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준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연배 정금출 최경태 최낙범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 9회(29명)

김경희 김기관 김기학 김영국 김철규 김 청 김태영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금열 유병철 윤일명 이동현 이주한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정민주 정해돈 조규양 조용길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흥기표

### 10회(47명)

강희운 김계순 김기호 김동민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용규 김창덕 박재경 박철민 송남진 신규태 오강욱 오기봉 윤부환 윤재모 윤태현 이계창 이근태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장병태 장인목 장창구 전영대 정무길 정상수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최병도 최성열 최순진 최해만 하영수 허영오

### 11회(68명)

강병희 강용대 강점석 고한준 공상기 광정출 광태업 권병용 김기주 김무룡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재곤 김재환 김태홍 김태홍 김학수 김항곤 문재호 박관호 박수경 박용관 박창순 박희태 백금덕 서영호 서자윤 성기득 심재용 심재홍 안강태 양수택 오길훈 오정광 유희수 윤재관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근우 이상태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종주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덕호 최성욱 최우형 하중선 (박희태 2019년)

### 12회(86명)

강보순 강수현 강창수 광진영 구진웅 구창희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두수 김명희 김봉성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근 김선일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익도 김종련 김중성 김중원 김중일 김지희 김진갑 김현주 김훈호 남기용 박문기 박상도 박영운 박용운 박정운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중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오수봉 왕한규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현달 이환철 임상원 임창안 장동석 장지흠 정대식 정수복

정영철 정호중 조은수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병훈 최신일 추영재 탁태정 허은도 허정욱 홍두표

### 13회(105명)

강영삼 강영주 고승구 고시준 구덕건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김간웅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신부 김영길 김영문 김영호 김장웅 김정균 김경일 김경태 김중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식 김홍철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양용 박영주 박원길 박일웅 박정운 박종택 박진태 박홍일 박효표 배대결 배정운 백길오 변윤식 서시주 서영용 성정호 송신의 송창식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심관섭 안성문 안준수 양길승 오한수 윤기갑 윤정의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경준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상택 이응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랑 이학수 임소철 임영홍 장영철 장용웅 전중신 정로상 정문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용갑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부영 최상호 최성욱 최태환 최희 추지석 한관수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황일인 황정대 (이경재, 박종택 2019년)

### 14회(80명)

강민제 강통삼 권근술 권 명 김덕호 김동규 김동화 김무남 김무용 김성부 김재도 김중수 김준우 김창기 김창호 김태희 김형수 김화욱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소일 박중철 박진재 박철수 박철홍 박호건 백태우 서정환 성이경 손영목 송성달 송재현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오태홍 유정호 윤영현 윤정남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광우 이길미 이동식 이동영 이영근 이상동 이수남 이승오 이재배 이현영 이효근 이현일 장삼식 전병순 전상배 정선연 정용마 정현규 조광영 조규환 조기정 조영봉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용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중 황수길 황원재 (진성태 2019년)

### 15회(84명)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정남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대영 김삼차 김소현 김승평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윤배 김정환 김중태 김중한 김준근 김중광 김충식 김판열 김황영 남기주 남남순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철양 박효가 배성훈 배 훈 백승진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신홍규 안경숙 오봉석 윤우경 윤희정 이상호 이선공 이수명 이승남 이영정 이의일 이정부 이종택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철성 이필연 임상택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장호조 정영선 조규중 조영일 조일량 조진환 최광용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익찬 황중부 (엄영길 2022년)

### 16회(78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박일 김상웅 김상호 김양원 김용진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중길 김태일 김현호 김형석 노원소 문성환 박두영 박소용 박수면 박수근 박용일 박정욱 박중봉 박춘호 박 흥 박영수 서정호 성기식 성진호 손승훈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여성국 영광해 오형철 옥윤석 윤희주 이경환 이길홍 이맹립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상남 이상근 이영재 이재룡 이종철 이채연 이창원 임승연 전무갑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지수신 차상원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황규호 (김광수, 김박일, 박정욱 2019년)

### 17회(73명)

김정은 강주수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부근 김상천 김성락 김성오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재봉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효남 남궁성은 노동섭 박가식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서창식 손성근 송승구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중 신희규 양성일 어윤대 오중한 윤성욱 윤수성 이간웅 이광석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재형 이형우 임우택 장길성 장응석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정태일 제양성 조준연 차성철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행 황상덕 황성진 (박종구 2019년)

### 18회(95명)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고병현 권영대 김경결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제 김두환 김병호 김사권 김성건 김영국 김중상 김중철 김지호 노정규 류중우 박상빈 문창열 김건태 박대우 박덕봉 박동우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정남 박종구 박종만 박종문 박준성 박호영 백승래 서무원 서재봉 설현기 손찬규 신인환 안창범 양동건 양세수 오재동 우원호 윤봉수 이근희 이영범 이영호 이춘남 이태우 이태준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상근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차영석 채부영 천두갑 최 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한기철 허도환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허태열 홍창우 황광진

### 19회(97명)

강동원 강준권 강환섭 공기주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근수 김덕규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복 김영우 김영탁 김윤기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행복 김 현 남진현 노덕현 노태규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배영구 서세복 서승성 석무관 선우일남 성환진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심재규 안정모 오태수 우치수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복춘 이상우 이상달 이양환 이용만 이용조 이용홍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현 이창홍 이춘만 임우근 임창주 임채원 장성규 장호준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규영 정수남 정용식 정태을 조성환 조재운 진수삼 최경석 최병수 최상원 최화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심재규 2019년)

### 20회(74명)

강기철 강석근 강위수 강현진 권우식 김대업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흥 김일석 김종민 김진환 김찬만 김태선 김한원 김현태 김형기 김형오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민형기 박대근 박용덕 박 준 박형준 배준태 백완규 백창열 서경석 서덕웅 손춘수 송상윤 신원기 심두수 심원섭 안재상 양태윤 여정호 오경석 유근준 윤봉태 윤우성 이세형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우종 이종열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승창 조영철 조윤태 차용환 최명호 최석립 최창하 최중경 최 철 한개정 허남규 허주한 홍순태

### 21회(106명)

강민우 강상태 강수경 강순석 강욱형 강창수 강태순 구분능 구정모 구현수 권오웅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문건 김상덕 김상하 김영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지호 김창수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봉흙 박성렬 박인협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손원조 신태윤 안상갑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태규 우중득 육화원 윤대희 윤상철 윤승근 이동채 이명환 이문수 이상기 이성집 이영철 이영훈 이익규 이임덕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종규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민 정정화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규용 최낙환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종 최은영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광수 한대운 한승헌 한인환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윤성 (김동우, 임성철, 최낙환 2019년)

### 22회(87명)

강호일 김광국 김대욱 김도살 김동욱 김명수 김명준 김무술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우홍 김원주 김일철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중달 김진철 김철해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병호 문성철 박규모 박문화 박승목 박인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호병 박홍조 배준식 배호원 백봉주 변대석 변중호 부창진 서경덕 서항용 손연모 손용섭 송승훈 송현준 신중수 안영수 안진환 여상규 오세길 유인주 유재락 이경상 이병수 이상협 이성모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임갑택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순태 조장현 조홍기 주성민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인석 홍순욱 황영환

### 23회(102명)

김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광상인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성호 김영기 김영철 김윤관 김익곤 김정록 김정환 김중배 김중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노영배 도명세 문명욱 문창호 박광규 박무열 박수갑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상희 신연근 신해철 안병두 안병울 양희택 오도준 원인건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종관 윤태규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덕일 이동성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성환 이수백 이 순 이승현 이영재 이윤석 이충호 장기원 장동규 장백기 장병기 정상대 전영호 전재홍 정규출 정기웅 정동일 정상근 정용호 정용성 조맹제 조장래 조한용 채행윤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하승윤 한명경 허근창 허병상 홍영희 (이부식 2020년)

### 24회(124명)

강기중 강동우 강철희 광두희 구분열 구자웅 권수찬 권영기 권해영 김경남 김도인 김동운 김동진 김만복 김병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득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식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인철 김준기 김진윤 김태홍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김호근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노홍덕 문성제 문희영 박극재 박명렬 박성표 박윤성 박창중 박창호 박천구 박해성 박홍규 배중갑 백운룡 변용준 변정우 서정대 서정덕 석문식 성송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찬호 송수건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안홍모 양순권 여옥주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광호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상룡 이상우 이상찬 이상학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종구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임철호 장민재 장수현 장원서 전대현 전용우 정동화 정명근 정명동 정무열 정수철 정영석

정영호 정윤상 조영수 조용화 조재진 주승환 주점권 주정규 지인덕 진병건 차문공 최연호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하 옥 하재갑 한상렬 한태운 허구연 황성훈

**25회(185명)**  
강석철 고명식 광동원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광배 김구화 김규진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 령 김문국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욱 김유환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욱 김유환 김익수 김장형 김정학 김종국 김종만 김중윤 김중현 김진영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김철수 김청수 김태선 김형근 노태호 문재인 박거한 박건수 박경립 박공용 박동건 박명우 박문갑 박성식 박세철 박원규 박용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국 박진상 박창준 박창훈 박흥기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성경출 손국영 손기천 송기현 송무룡 송세경 송영근 송정규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신현대 심영재 안대상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계현 양승욱 양시욱 양수조 여성조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오경욱 오상조 우진태 유근기 유순기 유영순 유종렬 윤태석 이계성 이근만 이길현 이대우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식 이상화 이성호 이수영 이승욱 이신호 이신화 이우석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흥익 임무홍 임상택 임영대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장승엽 전상태 전섭태 전영주 전원배 정무동 정성호 정신배 정윤철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도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길 차인환 최경호 최동하 최병주 최재환 최차환 최태동 최현림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한현교 허영형 허택 황근태 황기철 황 철 황호선

**(박동건 황호선 2019년, 이길현 장대락 2020년) 26회(107명)**  
강명원 강수남 강영녕 고석훈 구영호 권영인 권해국 김경철 김광식 김기성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상현 김 석 김영섭 김영호 김용찬 김원정 김재용 김경무 김중우 김주병 김채영 김태규 김태년 김택영 김호용 남인희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우 박재욱 박효대 배갑상 백문현 서준희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심승택 안길호 양국명 왕정일 왕효석 유수현 이경호 이규용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상근 이상춘 이영학 이재봉 이정근 이종욱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정호 임철호 장경재 장인철 정국근 정영호 정익교 정한경 정현준 조만식 조민규 조일제 주규철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추창구 하성봉 하원규 하주근 한창학 허갑석 허진호 현동우 홍순하 홍청근 황광수

**27회(90명)**  
강봉호 강주훈 강태영 광태홍 김강호 김경진 김광익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열 김병욱 김병철 김병주 김병호 김상문 김안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일리 김정희 김중도 김중욱 김중하 김지언 김진명 김춘영 김태우 김태운 김학희 김호균 류재걸 문규상 문두찬 박규욱 박병주 박찬식 박준규 박치호 반정열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신하원 안중택 양태종 오봉인 유성모 유영상 유영호 윤모성 윤문태 윤석건 윤일근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민부 이상득 이요섭 이원호 이인규 이재덕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 현 이형복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원재 정재호 조민제 조봉관 조용수 조우영 천우태 최용수 최인성 최희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박치호 2019년) 28회(90명)**  
강현안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영철 김용석 김용섭 김익성 김인준 김준배 김준연 김창준 김철수 김태완 김형진 김흥국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근 박병준 박성권 박세혁 박영규 박용철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무현 백선용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석안식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오현석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명수 윤일희 이민수 이민우 이승열 이양훈

이용남 이원철 이윤규 이정권 이정기 이종대 이종만 이철형 이홍우 임익성 전광병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영주 정영주 정인식 정치영 조대현 조석태 주중목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한기웅 한명재 허남식 허명근 황장두

**(강현안 김창준 2019년) 29회(120명)**  
강대용 강병철 광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광우 김근덕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근 김상규 김석윤 김세원 김 영 김영훈 김영희 김용채 김인술 김태현 김정암 김종권 김중희 김중진 김철우 김태명 김태완 김호성 김홍기 문명환 문백섭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홍 박명섭 박병률 박병준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규 박창언 배진영 배현호 백성욱 변중만 사공운 서봉교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손대권 손홍근 송희태 신현수 신호범 신홍기 안창홍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 옥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진 이석조 이상열 이승우 이승호 이영태 이재성 이정윤 이종포 이준환 이종원 임무택 임봉성 임상훈 임채병 장 만 전현수 정기조 정 길 정대환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주재환 차동열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범수 최영식 최원락 최정만 최종열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한휘철 허광욱 현계성 황맹교 황유명

**(곽태섭 송희태 2019년, 황유명 2020년) 30회(112명)**  
강석철 구형건 권용택 김경섭 김경수 김관일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상직 김성복 김성은 김승대 김영일 김영호 김인섭 김재일 김중근 김중진 김창근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문창호 박관식 박규완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인달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배경조 배기경 배승한 백기연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현덕 신교선 신규진 신윤원 심풍수 오경일 오광태 오홍조 옥유전 유영록 유재일 유현덕 윤희규 윤인태 윤희순 이경우 이기환 이명건 이선광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인호 이종욱 이진걸 이태봉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석일 장호영 장홍상 전은석 전준호 정경목 정광덕 정기룡 정병호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우정 정재화 조경제 조병훈 조승환 채영재 최거훈 최병철 최병태 최영규 최우철 최 옥 최원수 최진곤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허선행 허 준 홍인기 황철민

**(구형건 이기환 조병훈 2019년,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31회(88명)**  
고영호 공중렬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 만 김영우 김병기 김성원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원태 김정관 김정덕 김중호 김태근 김판덕 김형수 김호성 김호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정 박종규 박중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동근 서수교 서태교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옥봉근 옥치호 윤석중 윤정수 이민재 이병태 이상일 이승원 임종태 장재훈 장정철 장병우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정창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문삼 최부영 최상규 최인목 최재선 최주홍 최진석 최해영 최효식 허명수 허병관 하학렬 한문성 한영오 허일현 홍성수

**32회(47명)**  
강기상 기영수 김동균 김영길 김종식 김종판 김창범 김태홍 민길식 박성철 박운대 박종구 박종우 박종호 박진원 배중찬 설원실 송승익 신국선 신명환 신철호 신한국 안영호 양문성 양성기 엄호선 오경명 우득현 유성대 윤성수 이문영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재균 장기호 전성환 정용운 정의주 정재중 최승찬 최중호 최효영 허 정

**(송승익 2019년) 33회(56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중욱 김중근 김 철 김태근 김태훈 김학성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류준남 박병진 박성병 박용득 박종운 박창완 박대중 배성만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훈 양승규 예영찬 오한선 이대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훈 이형근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용남 최홍원 황경원 황규태

**(김종만 최용남 2019년) 34회(43명)**  
강승기 광수균 구동희 구본철 김동욱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신중 김주섭 김중근 김태하 김현범 노인선 박광오 박기훈 박재욱 박철웅 박철호 백운창 송환성 양철용 오승대 옥재명 이강희 이상운 이성영 이용희 이재완 이준권 이진호 장경원 장현기 정노혁 정성근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최대한 최용철 태일산 황호용

**(정노혁 정하태 2019년) 35회(45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김우신 김인수 김홍근 나동욱 류인수 박세종 백현호 서상욱 서석근 성규원 성창용 손재수 송화철 안종업 안종일 안창돈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복근 이성환 이영오 이종찬 이춘기 이호성 임성배 장우진 장인화 정성윤 정윤성 정효영 주귀훈 진호준 최근식 최기평 하승훈 황용순

**36회(85명)**  
강순복 공진식 광상호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동기 김 막 김병주 김상백 김영훈 김용진 김용진 김원석 김정현 김중백 김중오 김중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김현철 남우진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재운 박주석 박진용 박철중 박철출 박호성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송현욱 신승렬 신용덕 신태원 안병룡 안재익 양호진 오정광 윤경준 이규진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주호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영학 임창섭 임창의 장상욱 장창용 전영목 정갑영 정병기 정병철 정원삼 정윤희 정창규 제갈재한 조경호 지동섭 차대일 최덕희 최상도 최승호 최윤침 최태섭 하재철 한형식 홍의창 황태호

**(윤경준 한형식 2019년, 임창섭 2020년) 37회(40명)**  
강성욱 권기원 김기덕 김기동 김상현 김영근 김영태 김원범 김중휘 김형기 김화중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만규 석영태 성창수 소수현 송경철 신우진 유호섭 윤태현 이주홍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영규 조용철 조현철 차기완 최기영 최환순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51명)**  
강금성 강병균 광동열 구동주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두호 김문철 김상수 김영길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 원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진권 박현수 서승현 손태환 신동훈 심재영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중현 오희진 윤경만 이동훈 이수호 이종명 이창호 이태훈 이희수 정영석 정원철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최휴경 한경민 한재필

**(김경태 2019년) 39회(61명)**  
고봉정 김경곤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정락 김중업 김진형 김천술 김태호 김형보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박평오 백기현 서은식 송기정 송영호 심양섭 안승진 안영준 양원정 엄일규 여동섭 오선호 오중현 원우광 윤동배 윤상훈 윤원욱 이가용 이배근 이상학 이승기 이원영 이종욱 이종운 이태운 임성욱 임용찬 장동수 장영욱 장윤혁 장 훈 정순환 정영설 정영철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지홍준 천용준 하순호 황영진

**40회(38명)**  
강창지 구도윤 권귀동 김근영 김병기 김병주 김성진 김영진 김중철 김중환 김춘강 문태영 박근성 박우성 박준재 배병훈 배영진 배윤성 서정민 심 철 안경진 염점철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 광 이 기 이영철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최치언 최태훈 한수열 황성수

**41회(31명)**  
강석희 강 훈 김봉준 김신욱 김인수 김종균 김형률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진형 백선민 성중훈 성찬기 송인환 원태용 이경석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이종민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조재봉 천성원 하범중 한정호 허중윤 허치희

**42회(19명)**  
김광철 김도형 김동수 김재용 김정언 김태규 남화정 박동식 박일수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신지식 유경상 이정택 정홍준 제용한 제정환

**43회(19명)**  
강병규 구명진 김남수 김성수 김영휘 김종술 김종식 김진수 박형규 심문섭 이성훈 이용상 이호영 전순표 전재홍 정찬홍 정효범 최현림 허재원

**44회(16명)**  
박민수 배봉건 송동근 안병규 우도균 이동렬 이상두 임정훈 임지훈 조영호 조진현 조청현 탁정환 한수성 허태욱 황인주

**45회(10명)**  
구자삼 김상수 김성준 김현호 신상왕 이상현 이수태 정중훈 최재근 하인수

**46회(30명)**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한 윤성근 이도수 이동엽 이성민 장윤성 최경근 최원석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이상민 2019년, 한영길 2022년) 47회(13명)**  
강백중 고달우 김재성 김하윤 배준수 서영우 성상용 이민형 이승택 정민호 정 신 정하윤 천영훈

**(성상용 2020년) 48회(3명)**  
권태현 이동재 김종철

**49회(47명)**  
강동준 김덕호 김민상 김성훈 김정욱 김종배 김태형 김태훈 김학균 김현우 김현중 노성욱 박덕주 박시영 박시원 박재승 박재홍 배기용 배승한 백상훈 서인석 손성호 신중국 안명진 안형수 윤정암 이동훈 이석영 이성욱 이성형 이충현 이현명 임기환 장민건 장재익 장형철 정우근 정일권 전선우 제민진 조영철 조용래 조진호 최우탄 최진영 홍민호 홍영근

**(이충현 2019년) 50회(37명)**  
강 철 구원모 김기원 김동현 김봉규 김석훈 김성수 김연태 김영환 김유진 김재웅 김재윤 김정희 노재훈 박인창 박중현 백광선 백승환 서석진 안동운 유우진 이기승 이상구 이상준 이인준 이종길 전익환 정재우 정희석 차승준 최정민 최진휘 최호진 하수성 허창호 황광표 황국현

**(박종연 2027년, 백광선 2019년) 51회(25명)**  
감동의 감중현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대우 김동규 김동주 김영재 도희중 문성용 박보순 반길호 손현직 송상민 신석진 신승환 신현식 염연아 오준호 이건영 이현승 정유석 정진우

**52회(39명)**  
강민호 강재식 강정오 고정희 공영수 광동협 구순모 김명중 김민철 김상근 김성화 김지운 김형준 박범기 박상현 박정규 박찬홍 박훈현 백선명 변정환 심중배 양현승 이도경 이현환 이환희 장중진 정상중 정안근 정현철 조용수 차상원 최병진 최영태 최준연 최호현 하상운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5명)**  
문희규 박성영 우재준 이원준 한동인

**(박성영 2020년) 54회(6명)**  
고강인 권태호 박신우 양현진 양형욱 정준섭

**55회(1명)**  
김태련

**58회(2명)**  
김현윤 정 혁

**67회(1명)**  
황유광(2019년)

**69회(1명)**  
정민기(2023년)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명예회원 박희규(2020년)

**북기주 동문회(16명)**  
조동훈(9회) 박병호(11회) 윤성희(12회) 정조웅(14회) 김철규(14회) 전승일(15회) 도광사(15회) 김선명(16회) 이만호(19회) 김수라(21회) 양경현(21회) 정갑식(21회) 하재청(21회) 방기준(23회) 육승주(26회) 이학순(40회) 기수 & 이름 확인불명 33명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11월 5일까지**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준	(1회)	100만원	김성찬	(12회)	50만원	김승현	(17회)	100만원	박석도	(18회)	50만원	김동원	(22회)	300만원	박맹우	(25회)	30만원	서영대	(28회)	150만원	김종진	(30회)	30만원
김희철	(3회)	30만원	김수원	(12회)	10만원	김용구	(17회)	100만원	박준성	(18회)	20만원	김문관	(22회)	20만원	이명철	(25회)	100만원	송명석	(28회)	20만원	김중휘	(30회)	100만원
송두호	(3회)	1000만원	김용호	(12회)	10만원	김용남	(17회)	10만원	황광건	(18회)	200만원	김성재	(22회)	50만원	강영남	(26회)	200만원	엄보용	(28회)	100만원	김창근	(30회)	30만원
김주호	(4회)	20만원	김우성	(12회)	10만원	김조일	(17회)	10만원	강영범	(19회)	10만원	김우홍	(22회)	300만원	권중대	(26회)	100만원	엄재홍	(28회)	200만원	김해근	(30회)	200만원
박석만	(4회)	20만원	김종수	(12회)	50만원	김준연	(17회)	100만원	김경재	(19회)	100만원	김일준	(22회)	30만원	김두천	(26회)	100만원	옥상곤	(28회)	200만원	김헌태	(30회)	100만원
박홍기	(4회)	30만원	김종원	(12회)	10만원	김준위	(17회)	100만원	김문기	(19회)	20만원	김정근	(22회)	200만원	김상현	(26회)	500만원	옥준원	(28회)	100만원	박동욱	(30회)	50만원
양중학	(4회)	300만원	김종일	(12회)	10만원	김지창	(17회)	30만원	김봉호	(19회)	500만원	김진영	(22회)	100만원	김우갑	(26회)	50만원	윤경섭	(28회)	200만원	박원호	(30회)	100만원
장수호	(4회)	100만원	김진갑	(12회)	20만원	김창윤	(17회)	300만원	김삼도	(19회)	10만원	김학균	(22회)	1000만원	김중우	(26회)	200만원	이경포	(28회)	200만원	박재백	(30회)	30만원
정순모	(4회)	200만원	김철기	(12회)	100만원	김태호	(17회)	20만원	김석윤	(19회)	20만원	노세현	(22회)	260만원	김태권	(26회)	10만원	이만수	(28회)	200만원	박정태	(30회)	30만원
정인조	(5회)	100만원	김춘광	(12회)	10만원	김효남	(17회)	10만원	김양곤	(19회)	50만원	민훈기	(22회)	10만원	김 형	(26회)	200만원	이만재	(28회)	100만원	박철우	(30회)	100만원
김윤용	(6회)	10만원	김호구	(12회)	10만원	문석웅	(17회)	50만원	김영우	(19회)	100만원	박상갑	(22회)	50만원	김호웅	(26회)	200만원	이승하	(28회)	100만원	서강태	(30회)	110만원
나오연	(6회)	100만원	남기용	(12회)	1000만원	박가식	(17회)	100만원	김정국	(19회)	10만원	박연표	(22회)	100만원	박권병	(26회)	200만원	이원용	(28회)	100만원	서민석	(30회)	60만원
노재형	(6회)	10만원	박영운	(12회)	10만원	박신도	(17회)	200만원	김중기	(19회)	10만원	박재상	(22회)	2000만원	박상호	(26회)	1550만원	이원철	(28회)	400만원	서복현	(30회)	100만원
오영은	(6회)	200만원	박용운	(12회)	10만원	박영두	(17회)	20만원	김철호	(19회)	100만원	박재인	(22회)	50만원	박재욱	(26회)	500만원	임재덕	(28회)	100만원	서재원	(30회)	30만원
이길상	(6회)	30만원	박정윤	(12회)	10만원	박영일	(17회)	10만원	남기진	(19회)	100만원	손연모	(22회)	100만원	배웅호	(26회)	50만원	정성묵	(28회)	200만원	서하수	(30회)	200만원
이희문	(6회)	30만원	박종정	(12회)	100만원	박인새	(17회)	100만원	박갑진	(19회)	30만원	유재진	(22회)	1000만원	성재업	(26회)	50만원	정영주	(28회)	50만원	석대식	(30회)	30만원
임경택	(6회)	10만원	박창수	(12회)	30만원	박재구	(17회)	20만원	박동화	(19회)	300만원	이동열	(22회)	100만원	성재일	(26회)	200만원	정해영	(28회)	100만원	송영환	(30회)	100만원
장재수	(6회)	20만원	안상직	(12회)	30만원	박종구	(17회)	100만원	박상식	(19회)	50만원	장무성	(22회)	100만원	양준영	(26회)	50만원	최강호	(28회)	500만원	송한식	(30회)	30만원
정건용	(6회)	10만원	안영규	(12회)	20만원	박청홍	(17회)	100만원	박종화	(19회)	100만원	장성복	(22회)	1000만원	엄윤섭	(26회)	100만원	한명재	(28회)	200만원	신범주	(30회)	30만원
정상철	(6회)	30만원	안영배	(12회)	10만원	백철균	(17회)	10만원	성낙출	(19회)	100만원	장성덕	(22회)	1000만원	왕정일	(26회)	100만원	한수범	(28회)	50만원	신영주	(30회)	30만원
정세동	(6회)	20만원	엄태섭	(12회)	30만원	서재홍	(17회)	20만원	신윤철	(19회)	30만원	장영근	(22회)	100만원	이경호	(26회)	100만원	허영철	(28회)	200만원	신윤원	(30회)	30만원
최상해	(6회)	10만원	오세정	(12회)	20만원	서정승	(17회)	200만원	안정모	(19회)	20만원	정해진	(22회)	50만원	이규생	(26회)	70만원	김기영	(29회)	50만원	안종화	(30회)	100만원
허 택	(6회)	30만원	옥계한	(12회)	100만원	손성근	(17회)	200만원	이성달	(19회)	100만원	조윤재	(22회)	200만원	이상원	(26회)	200만원	김대욱	(29회)	3000만원	오경태	(30회)	10만원
이우호	(7회)	50만원	왕한균	(12회)	100만원	송유근	(17회)	30만원	이용만	(19회)	10만원	최학봉	(22회)	100만원	이순철	(26회)	50만원	김도태	(29회)	30만원	왕순모	(30회)	30만원
故공상태	(8회)	100만원	윤성희	(12회)	12만원	송인문	(17회)	100만원	이용홍	(19회)	1000만원	허범도	(22회)	1000만원	이영덕	(26회)	100만원	김석윤	(29회)	30만원	유영록	(30회)	10만원
구본섭	(8회)	100만원	이수영	(12회)	10만원	신정아	(17회)	10만원	이장희	(19회)	100만원	김동욱	(23회)	200만원	정거돈	(26회)	100만원	김영기	(29회)	10만원	유재일	(30회)	10만원
김봉길	(8회)	500만원	이승훈	(12회)	10만원	신 종	(17회)	30만원	장홍의	(19회)	500만원	김동욱	(23회)	50만원	정국근	(26회)	100만원	김인술	(29회)	100만원	윤기승	(30회)	50만원
박동열	(8회)	1000만원	이용언	(12회)	50만원	안정희	(17회)	30만원	최연근	(19회)	10만원	김상영	(23회)	50만원	정익교	(26회)	100만원	김정암	(29회)	100만원	윤성덕	(30회)	1000만원
안종렬	(8회)	100만원	이원우	(12회)	100만원	여성열	(17회)	10만원	최화익	(19회)	10만원	김영기	(23회)	1억200만원	조일제	(26회)	50만원	김종명	(29회)	30만원	윤인태	(30회)	50만원
윤상현	(8회)	10만원	임정명	(12회)	30만원	오태식	(17회)	100만원	황태경	(19회)	20만원	김용기	(23회)	20만원	최수일	(26회)	50만원	박동일	(29회)	50만원	윤준수	(30회)	30만원
이윤조	(8회)	100만원	정대식	(12회)	10만원	우기남	(17회)	50만원	황태원	(19회)	1000만원	김용선	(23회)	30만원	하원규	(26회)	500만원	박동혁	(29회)	200만원	이광봉	(30회)	30만원
장혁표	(8회)	100만원	정영철	(12회)	200만원	윤성욱	(17회)	500만원	황호균	(19회)	100만원	김정록	(23회)	20만원	한원우	(26회)	100만원	박상길	(29회)	100만원	이광희	(30회)	20만원
김영국	(9회)	10만원	최병준	(12회)	10만원	윤수성	(17회)	30만원	강석근	(20회)	300만원	김중광	(23회)	100만원	하주근	(26회)	50만원	박성철	(29회)	200만원	이기환	(30회)	100만원
김중호	(9회)	50만원	최병훈	(12회)	10만원	이건우	(17회)	100만원	강영환	(20회)	10만원	김태용	(23회)	10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박인평	(29회)	50만원	이명근	(30회)	30만원	
김태영	(9회)	10만원	최신일	(12회)	20만원	이성흙	(17회)	30만원	김세준	(20회)	100만원	김 현	(23회)	30만원	김진희	(27회)	100만원	배진영	(29회)	100만원	이영준	(30회)	30만원
박당희	(9회)	20만원	탁혜정	(12회)	10만원	이세복	(17회)	1000만원	김원율	(20회)	10만원	노영배	(23회)	200만원	류재걸	(27회)	10만원	사공운곤	(29회)	30만원	이인길	(30회)	50만원
성백규	(9회)	10만원	하일민	(12회)	30만원	이수창	(17회)	100만원	김일석	(20회)	100만원	박수갑	(23회)	100만원	문두찬	(27회)	500만원	송희태	(29회)	50만원	이학수	(30회)	70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한춘배	(12회)	10만원	이우기	(17회)	10만원	김태선	(20회)	300만원	서영수	(23회)	100만원	윤종락	(27회)	10만원	양승오	(29회)	80만원	이한수	(30회)	20만원
이대규	(9회)	100만원	김정성	(13회)	30만원	이일영	(17회)	10만원	김태영	(20회)	500만원	서한현	(23회)	10만원	이요섭	(27회)	30만원	윤종경	(29회)	150만원	이환기	(30회)	30만원
이영구	(9회)	10만원	이경재	(13회)	100만원	이정보	(17회)	10만원	김형우	(20회)	1000만원	손근식	(23회)	100만원	이 현	(27회)	10만원	윤형근	(29회)	50만원	인준승	(30회)	20만원
한동대	(9회)	50만원	이정명	(13회)	30만원	이종길	(17회)	10만원	노기태	(20회)	500만원	송충승	(23회)	50만원	한수길	(27회)	200만원	이경호	(29회)	100만원	임영수	(30회)	50만원
황영선	(9회)	20만원	정철기	(13회)	30만원	이종혁	(17회)	10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신상희	(23회)	100만원	27회 동기회	60명		이석조	(29회)	500만원	임영호	(30회)	30만원
김상국	(10회)	20만원	황일인	(13회)	100만원	이형우	(17회)	100만원	박병철	(20회)	500만원	안병을	(23회)	20만원	2740만원			이승호	(29회)	100만원	장영조	(30회)	30만원
김선동	(10회)	20만원	김경일	(15회)	1000만원	장승구	(17회)	200만원	박형준	(20회)	100만원	안병화	(23회)	2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			이종포	(29회)	50만원	정영호	(30회)	100만원
김성규	(10회)	50만원	서정욱	(15회)	10만원	전경명	(17회)	100만원	배서호	(20회)	200만원	안성민	(23회)	100만원	(4명) 400만원			임광열	(29회)	100만원	정승진	(30회)	30만원
박재경	(10회)	10만원	손부홍	(15회)	500만원	정량부	(17회)	100만원	백문찬	(20회)	100만원	옥치범	(23회)	300만원	구영소	(28회)	500만원	임상훈	(29회)	50만원	정재화	(30회)	60만원
박종문	(10회)	20만원	이상모	(15회)	30만원	정태일	(17회)	100만원	신원기	(20회)	200만원	원인건	(23회)	200만원	김관세	(28회)	100만원	전장화	(29회)	100만원	천성일	(30회)	10만원
신대수	(10회)	20만원	임영길	(15회)	100만원	정해표	(17회)	10만원	이실근	(20회)	100만원	육병천	(23회)	20만원	김기태	(28회)	300만원	장 만	(29회)	100만원	최상호	(30회)	50만원
오강욱	(10회)	200만원	하정부	(15회)	10만원	제양성	(17회)	50만원	장상배	(20회)	300만원	윤순현	(23회)	200만원	김만중	(28회)	300만원	정 길	(29회)	100만원	최영규	(30회)	20만원
이봉원	(10회)	10만원	한해수	(15회)	1000만원	조용운	(17회)	30만원	장춘식	(20회)	10만원	이동성	(23회)	100만원	김명영	(28회)	200만원	정성훈	(29회)	100만원	최우철	(30회)	2억500만원
이연희	(10회)	20만원	강종국	(16회)	10만원	조중연	(17회)	500만원	정규식	(20회)	300만원	이문희	(23회)	200만원	김명준	(28회)	100만원	조승제	(29회)	100만원	(2억 경고 직접 기부)		
임호웅	(10회)	20만원	강진중	(16회)	10만원	천용광	(17회)	10만원	정용환	(20회)	300만원	이병찬	(23회)	300만원	김부윤	(28회)	100만원	황유명	(29회)	30만원	최재봉	(30회)	100만원
전영대	(10회)	20만원	김상호	(16회)	100만원	최만식	(17회)	5000만원	차상곤	(20회)	200만원	이상수	(23회)	50만원	김상정	(28회)	100만원	강석철	(30회)	30만원	추태명	(30회)	10만원
정승석	(10회)	50만원	박춘호	(16회)	10만원	최성호	(17회)	1000만원	채경석	(20회)	200만원	이중호	(23회)	100만원	김용석	(28회)	110만원	권영인	(30회)	30만원	하규양	(30회)	100만원
조양제	(10회)	1000만원	여성국	(16회)	10만원	추봉실	(17회)	10만원	최장하	(20회)	300만원	전영조	(23회)	200만원	김정유	(28회)	200만원	권용택	(30회)	50만원	하진근	(30회)	10만원
허영오	(10회)	200만원	강주수	(17회)	10만원	하영수	(17회)	300만원	한기완	(20회)	100만원	전원익	(23회)	30만원	김중섭	(28회)	100만원	구을석	(30회)	10만원	허영재	(30회)	30만원
공상기	(11회)	100만원	권경술	(17회)	100만원	허종언	(17회)	30만원	허규판	(20회)	1000만원	정상건	(23회)	200만원	김중성	(28회)	250만원	김경수	(30회)	30만원	황철민	(30회)	100만원
김재곤	(11회)	30만원	김길호	(17회)	100만원	황중부	(17회)	10만원	허남균	(20회)	300만원	조현표	(23회)	50만원	김준배	(28회)	100만원	김기섭	(30회)	1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백연균	(11회)	30만원	김동수	(17회)	500만원	현태일	(17회)	100만원	강창수	(21회)	500만원	채행운	(23회)	100만원	김준연	(28회)	200만원	김기수	(30회)	10만원	450만원		
심재룡	(11회)	120만원	김동조	(17회)	10만원	17회마산동기회			김성환	(21회)	300만원	최인식	(23회)	50만원	김형진	(28회)	250만원	김기업	(30회)	5			

2018년 12월 24일 발행

###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11월 5일 ~ 2018년 12월 18일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양승오(29) 20만원			- 소계 : 20만원			- 총 누계금액 : 13억7,657만원									
김재술(31회)	60만원	손은정(31회)	12만원	조성근(31회)	12만원	김법영(33회)	3000만원	황용순(35회)	10만원	이영수(39회)	10만원	이준석(41회)	1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김정덕(31회)	12만원	손정수(31회)	24만원	조영기(31회)	24만원	김재선(33회)	100만원	김영훈(36회)	100만원	한성호(39회)	10만원	임병호(41회)	10만원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김정택(31회)	12만원	손진기(31회)	12만원	조현우(31회)	12만원	김종만(33회)	20만원	김철원(36회)	100만원	김영진(40회)	10만원	장익조(41회)	10만원	부산교통공사용마회	100만원
김중호(31회)	120만원	신상하(31회)	12만원	천장호(31회)	12만원	김종인(33회)	12만원	이동희(36회)	30만원	이영철(40회)	10만원	정필상(41회)	10만원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김진국(31회)	12만원	신수열(31회)	12만원	최경우(31회)	32만원	남경태(33회)	100만원	임창섭(36회)	30만원	강병오(41회)	10만원	조원호(41회)	10만원	샌프란시스코동문	50만원
김태근(31회)	100만원	심규열(31회)	12만원	최봉근(31회)	12만원	류장근(33회)	100만원	정인석(36회)	30만원	강석희(41회)	10만원	천성원(41회)	10만원	(9회 조동훈, 윤승대, 11회 추	
김판덕(31회)	12만원	심재홍(31회)	12만원	최상규(31회)	12만원	류홍영(33회)	30만원	김길영(37회)	20만원	김기영(41회)	10만원	최호열(41회)	10만원	기석, 박병호, 12회 최수웅,	
김현주(31회)	12만원	안기수(31회)	24만원	최재호(31회)	12만원	박명진(33회)	7000만원	김원범(37회)	10만원	김병성(41회)	2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14회 정조용, 김철규, 21회	
김현율(31회)	12만원	안우현(31회)	60만원	최진섭(31회)	200만원	박성병(33회)	10만원	박용진(37회)	50만원	김봉준(41회)	30만원	허치회(41회)	50만원	손석보, 양경현, 정갑식, 김	
남기태(31회)	200만원	오민일(31회)	300만원	최해영(31회)	12만원	백수현(33회)	50만원	양귀수(37회)	10만원	김형률(41회)	50만원	홍동훈(41회)	30만원	수라, 하재철, 23회 방기준,	
남철우(31회)	60만원	오용환(31회)	120만원	최효식(31회)	60만원	서재영(33회)	100만원	조영규(37회)	20만원	남관희(41회)	30만원	홍석우(41회)	50만원	26회 육승주)	
류명석(31회)	100만원	윤정수(31회)	20만원	하명수(31회)	30만원	송중현(33회)	100만원	홍병일(37회)	10만원	류지섭(41회)	30만원	41회 산악회	30만원	시카고동문107만원	
박경수(31회)	200만원	이병태(31회)	100만원	하학열(31회)	120만원	신용준(33회)	10만원	홍원석(37회)	10만원	박정기(41회)	20만원	42회 동기회	200만원	(22회 김정수 회장 외)	
박석기(31회)	100만원	이석우(31회)	12만원	한광규(31회)	12만원	이순환(33회)	1000만원	황태윤(37회)	10만원	백선민(41회)	10만원	이용상(43회)	10만원	용마회	190만원
박석두(31회)	100만원	이승진(31회)	12만원	허일현(31회)	12만원	이형근(33회)	50만원	37회 동기회	200만원	변영호(41회)	10만원	김진수(43회)	42만원	(시창:91만, 사하구창:45만,	
박인정(31회)	12만원	이채웅(31회)	24만원	홍성수(31회)	120만원	정인실(33회)	10만원	곽동열(38회)	10만원	신동진(41회)	20만원	최성필(43회)	40만원	서구창:54만)	
박종규(31회)	100만원	장건호(31회)	12만원	김창범(32회)	20만원	최영두(33회)	12만원	권두성(38회)	3000만원	안광근(41회)	1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재동경문화200만원	
박희암(31회)	12만원	장성호(31회)	12만원	박영욱(32회)	30만원	한상봉(33회)	100만원	박준표(38회)	20만원	유수호(41회)	10만원	장성익(45회)	50만원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배정우(31회)	12만원	장재훈(31회)	12만원	이병준(32회)	100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오희진(38회)	10만원	윤성보(41회)	20만원	47회 동기회(26명)		100만원	
서동균(31회)	12만원	장평우(31회)	300만원	최춘호(32회)	100만원	오상민(34회)	30만원	이종명(38회)	300만원	윤성환(41회)	10만원	300만원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서수교(31회)	100만원	정 문(31회)	120만원	허 규(32회)	10만원	이재완(34회)	500만원	김도경(39회)	20만원	이경석(41회)	50만원	박종현(50회)	100만원	30만원	
서태교(31회)	100만원	정용정(31회)	50만원	허재창(32회)	30만원	이진호(34회)	200만원	김윤홍(39회)	30만원	이경호(41회)	30만원	김경원(54회)	10만원	신길송(기수불명)	18만원
손영태(31회)	1억원	정인화(31회)	12만원	32회 동기회	200만원	김동인(35회)	10만원	김진호(39회)	20만원	이양걸(41회)	200만원	故표종빈(64회)	500만원	기 타(이름불명)	3만원
(경고 직접 기부)		정정남(31회)	132만원	계동원(33회)	30만원	김병수(35회)	10만원	박인석(39회)	100만원	이종민(41회)	10만원	故박태현 은사			
성오용(31회)	12만원	정철수(31회)	500만원	김기산(33회)	70만원	이남기(35회)	10만원	양정교(39회)	10만원	이주하(41회)	30만원	(박치호, 27회) 1000만원		- 합계 : 13억7,637만원	

### 2018년 용마의 밤 참석자 총 730명 명단

(2018. 12. 12)

6회(2명) 박용진 배종권  
 8회(3명) 김봉길 장혁표 조봉석  
 9회(3명) 김경희 김영국 정행권  
 10회(3명) 고용재 이상실 최병도  
 11회(17명)  
 강범중 강용대 김병기 김원형 도일윤 백금덕  
 안강태 이 명 이상태 이상훈 이재진 장영권  
 정은표 천금준 천동조 최근이 최득호  
 12회(12명)  
 강창수 곽삼덕 김두수 김용해 김우성 김종일  
 오세정 오수봉 이원우 장상근 장일근 하일민  
 13회(10명)  
 배대결 서종학 윤기갑 이규채 이태랑 장영길  
 정은섭 제병민 조성호 최태환  
 14회(5명) 김봉춘 김화옥 이광언 조기정 하현수  
 15회(20명)  
 강민조 김윤기 김장길 김정길 김종태 김항영  
 박소남 박재준 박준철 손부홍 신홍규 오세창  
 이동근 이선공 임상택 임영길 전동석 정창용  
 주상학 하영수  
 16회(8명)  
 김한선 서고명 손승방 송규정 안국정 이겸일  
 이종철 정우광  
 17회(5명) 김용남 박청홍 손영문 송영태 정량부  
 18회(10명)  
 김길재 김원태 김재경 박석도 박선동 서부원  
 오수명 우원호 장기현 하영일  
 19회(18명)  
 김경재 김규하 김용엽 김중기 남진현 노덕현  
 노태규 문무영 박갑진 배우삼 성낙출 이용흙  
 이장희 이종명 이창흙 이춘만 장홍의 조정술  
 20회(14명)  
 금석주 김세준 남경열 류영덕 박병관 박병천  
 박장대 박재인 우철성 장병호 장춘식 정승창  
 최창하 탁성식  
 21회(23명)  
 강수경 권용호 김 정 김부근 김형동 김호성  
 변창섭 송원경 양병주 오거돈 오익희 윤승근  
 이성집 이영상 이익규 이재화 임경범 정길영  
 정상인 정영천 정의창 최수명 최집수  
 22회(1명) 허범도  
 23회(22명)  
 강실근 김기열 김상영 김영기 김중광 김태용  
 문주열 박대동 박재완 박재호 송승송 안호창  
 윤순현 이병찬 이상수 이상운 이 순 장대익  
 전상태 전용국 조윤중 채행운

24회(26명)  
 강중문 권상철 권수찬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박종제 손세영 안명수 안상수 여성근 여철우  
 이명규 이현우 임덕철 임민호 장동출 장수현  
 장한중 전대현 조영태 주점권 최명진 최창림  
 최태영 황성훈  
 25회(40명)  
 구도근 김구화 김영명 김옥권 김용수 김유환  
 김중국 김중만 김진철 문창진 박광용 박세철  
 박종찬 박창훈 서병수 서보민 송정규 안희석  
 양계현 여성조 옥동훈 윤태석 이도석 이상화  
 이수영 이신화 이용우 임우홍 장세훈 장승엽  
 장양광 전상태 전선태 정윤철 제영성 조판제  
 최재환 탁준길 허 택 황호선  
 26회(14명)  
 강수남 권해국 김중우 김태년 김태용 손영수  
 송진석 왕정일 이경국 이영학 장인중 조만석  
 최윤림 최의수  
 27회(13명)  
 강성보 강승호 문두찬 박찬용 반정열 배병록  
 백민호 옥충석 유영호 윤일근 이상열 최휴진  
 허 한  
 28회(10명)  
 구영소 권기택 김용원 김치운 노영현 박종기  
 이만수 이원철 정영주 정인식  
 29회(17명)  
 김근덕 김대욱 김중명 김호성 박봉구 박성철  
 배성호 서영학 송희태 오덕현 이강훈 이문열  
 이현를 정 길 차의수 최영식 현응렬  
 30회(10명)  
 권용택 김우현 김재철 김정웅 김현태 서강태  
 서민석 우홍제 유정돌 홍인기  
 31회(18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준영 김태근 김효연  
 류명석 박세환 박종호 서동균 서수교 심재구  
 안중수 이병태 정용식 조성근 최상규 최주홍  
 32회(14명)  
 김태홍 김형수 박성호 박종석 박종호 서태원  
 송기수 이병훈 이용길 이종희 이진호 이환용  
 정현욱 조춘식  
 33회(36명)  
 계동원 고창성 공진환 김 일 김 철 김기산  
 김법영 김상욱 김윤성 김재선 김중만 김태균  
 남경태 남택은 마승훈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영배 박용득 박진홍 박창완 박태중 서길원  
 서재영 송중현 여민상 이 훈 이동근 이윤조

이호인 장정석 주기훈 진병선 최용남 황명상  
 34회(17명)  
 권병용 김병석 김상균 김상진 김인철 김중근  
 김현용 박기훈 손병걸 옥재명 이성열 이용희  
 이진호 정하태 조 선 조시형 최대한  
 35회(7명)  
 김세정 손기철 손수범 안종일 이인욱 이효성  
 정윤성  
 36회(43명)  
 김경우 김경찬 김광수 김동기 김동일 김병주  
 김용진 김원석 김정현 김중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박용철 박재운 박진용 박철중  
 손광성 손진규 송준호 신승열 양호진 윤경준  
 이 창 이동희 이성호 이순준 이우수 이정범  
 이필이 이학수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장상욱  
 정병기 정윤희 조성영 차동엽 최상도 최승호  
 최태섭  
 37회(31명)  
 강성욱 강용하 권혁상 김기덕 김동욱 김영태  
 김재현 김종관 김진영 김형권 김형기 문병오  
 박진석 성득용 소수현 손봉상 신우진 양태형  
 윤태환 이종고 이호진 임창근 장원익 정재호  
 조성각 차기완 천용찬 탁나준 표성수 홍병일  
 황 빈  
 38회(28명)  
 곽동열 권두성 김경근 김문철 김성호 김승일  
 김원철 김태성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박정민 배석문 백철현 신동훈 심재영 오종현  
 오희진 윤경만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명래  
 조석태 주재훈 차정호 최재신  
 39회(21명)  
 김규웅 김대중 김병기 김용태 김종엽 노성수  
 문병은 박근태 박용한 박인석 백기현 서은식  
 안승진 안영준 윤상훈 윤원욱 이상학 이종운  
 장두룡 최보식 하순호  
 40회(22명)  
 강덕영 김근영 김동근 김동우 김성진 김종길  
 김중환 김진우 김준강 박근성 박기엽 배병훈  
 배영진 서재원 안성호 윤경학 이강욱 이공환  
 이승배 이정삼 정원철 한수열  
 41회(15명)  
 강 훈 김승원 김신욱 김인수 백선민 백창봉  
 성찬기 안광근 양희동 윤성환 이명재 이양걸  
 이현철 전삼록 최영준  
 42회(18명)  
 고장석 곽창우 김태구 김현오 문지성 박동식

송승열 신봉준 안정일 유경상 윤영기 윤영덕  
 이대희 이인호 임영규 정용중 정유철 정홍준  
 43회(24명)  
 강병규 강상훈 김대영 김대훈 김동현 김성수  
 김영휘 김정남 김중술 김중식 박경근 박경석  
 박상순 박승삼 박형규 배진국 심문섭 오일남  
 이상필 이정열 이진배 정영민 최동환 허재원  
 44회(30명)  
 권상근 김부건 김성훈 김수용 류병완 문형준  
 박종현 서영민 설상욱 안병규 우도균 윤상훈  
 이윤식 임정훈 장원준 장원준 전광열 정종윤  
 제정완 조상화 조수호 조영호 조진현 조정현  
 차성민 최현덕 최현욱 탁정환 하태욱 한수성  
 45회(11명)  
 구자삼 권우일 김동규 김상수 김성준 김중현  
 박현승 손창오 윤한균 정종훈 조청래  
 46회(3명) 서용택 유주상 정수찬  
 47회(7명)  
 김하윤 배준수 성상용 전유수 정하윤 조성빈  
 허기호  
 49회(10명)  
 김학균 김현중 배승한 신중국 이성형 이충현  
 장형철 정일권 최유탄 최진영  
 50회(14명)  
 김기원 김동현 김봉규 김석훈 김성수 박복열  
 박종현 백광선 서석진 오유준 이상구 정재우  
 정희석 차승준  
 51회(10명)  
 감동익 김영재 박보순 서성호 송심근 신현식  
 유상일 이건영 임용관 정유석  
 52회(10명)  
 김도훈 김민철 정 민 김지운 김태현 이도경  
 정상중 조용수 한중현 허근영  
 53회(15명)  
 강덕천 강원석 김경찬 김권우 김상욱 김재한  
 박창우 박현근 선재원 송승윤 우재준 이기주  
 이원준 임동녕 최동환  
 54회(3명) 김태용 신동수 이준일  
 55회(1명) 이대호  
 57회(1명) 박주환  
 58회(1명) 김현윤  
 61회(1명) 김성환  
 63회(1명) 홍재영  
 65회(1명) 황태호  
 기타(12명) 경남고 정대호 교장 외 학생 5명,  
 경남중 박승병 교장, 최영화 교감 외 학생 5명

# 2019년 근하신년

등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KJ 김&정 해운대병원

척추관절뇌신경통증 최선을 다하는 병원

원장 **김범영** (33회/용마산악회 회장) , **정재익**

= 진료 과 목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통증의학과

척추 및 어깨질환의 획기적인 비수술적 치료

**FIMS (컴퓨터영상신경치료법)**

CT(컴퓨터단층촬영) / 근전도검사 / 골다공증검사 / 초음파검사

폐인술루션치료 / 신장분사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자기장치료 / 물리치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88, 울트라타워 8층  
지하철 2호선 장산역 10번출구 방향)

Tel : 051) 702-7017 (입원실, 수술실)

